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1 07 Vol. 173

사진 이의록

1 〈달빛 곡예단(좌로, 앞으로, 좌로 앞으로 한 번씩)〉
합성수지 점토, 안료, 스티로폼 | 가변크기 | 2021
2 〈Untitled1, Untitled2와 불로초(3주차)〉
혼합재료, 가변크기 | 2020
3 〈Beam Me Up!〉 전시 전경 | 2021

이달의 표지 작가

문이삭

문이삭은 국민대학교 입체미술전공 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Beam Me Up!〉(금호미술관, 2021) 〈분신술: 서불과차〉(팩토리2, 2019) 등의 개인전과 〈Take Me Home〉(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9) 〈폴리곤 플래시 OBT〉(인사미술공간, 2018) 〈사물들: 조각적 시도〉(두산갤러리, 2017)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이삭 작가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스팍TV〉

이미지와 사물 그리고 인간의 유동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심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화와 SF, 일상과 미술사의 이미지와 형식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중첩한 조각의 형식으로 오늘의 시공간에 대해 질문한다. 초기작부터 다층적 공간의 간극을 증폭하거나 이들의 공존과 연계에 대한 시도를 지속했다. 〈분신술: 서불과차〉는 '주체적 복제'가 특징인 '분신술'을 참조해 이미지와 조각, 전시장을 복제하고 이들의 협응을 실험한 전시다. 각종 스마트 기기로 재편된 세상에서 전시 관람 경험은 어떻게 재구성될지 질문했다. 최근 개최한 개인전 〈Beam Me Up!〉은 '사물이 이미지로 해체되고 또다시 사물로 재조합'되는 '공간 이동'의 형식을 참조했다. 사물이 이미지로, 이미지가 사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뀌는 오늘의 '인공 사물'을 진단하기 위해 합성수지 점토로 그리기와 만들기를 교차하며 사물 조각을 직조한다. 이는 이미지와 사물을 넘나드는 소조의 형식에 대한 실험이자 동시에 일상의 사물로 제작된 아상블라주Assemblage[1] 조각을 비평한다.

작업 과정에서 사물의 물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작업 혹은 전시 관람 경험의 경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는 위기에 봉착한 사물의 위상과 그에 따른 경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물이 온라인으로 이행하는 시대에 이러한 시도가 가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이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과 유동성을 획득했을지라도 인간의 신체는 여전히 유한한 사물로서 땅 위에 자리하는 데 있을 것이다.

1 잡동사니나 일상적 대상들을 한 화면에 입체적으로 조합하는 경향. 평면 형태가 아니라, 입체적 콜라주 기법을 일컫는다.

Contents

2021 07 Vol. 173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문이삭

테마 토크

지금, 우리 가까이 다가온 국악

06 칼럼 자유를 품은 현대의 국악

08 리포트 1 새로운 국악을 이끈 주역들

12 리포트 2 창작 국악인 지원 사업

14 인터뷰 개성 넘치는 거문고 솔리스트 삼인방, '쓰리고'

18 스낵 21세기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곳

사람과 사람

20 문화인 만화가 주호민

26 작가의 방 이지민 연출가·나은중 건축가

28 서울 찰나

30 진실 혹은 대담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이슈 & 토픽

36 쟁점 도서 판매·유통 시스템의 복잡성

38 화제 복합문화예술공간의 장례식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유연식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공간, 공감

40 공간 이화동 '책읽는 고양이'

42 공감 1 뮤지컬 〈드라큘라〉와
연극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44 공감 2 책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㉜
내 몸을 부끄러워한 죄

48 김송희의 썰(說) 아이돌(?) 매드몬스터와 아이돌 에스파

50 류태형의 음악 정원
서거 110주년 맞은 구스타프 말러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김태용·민규동 감독의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WEBZINE+

56 웹진 [비유] 여름의 할 일

58 웹진 [연극in] 신촌문화발전소 2021 오드아이프로젝트
〈이홍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60 웹진 [춤:in] 에마누엘 사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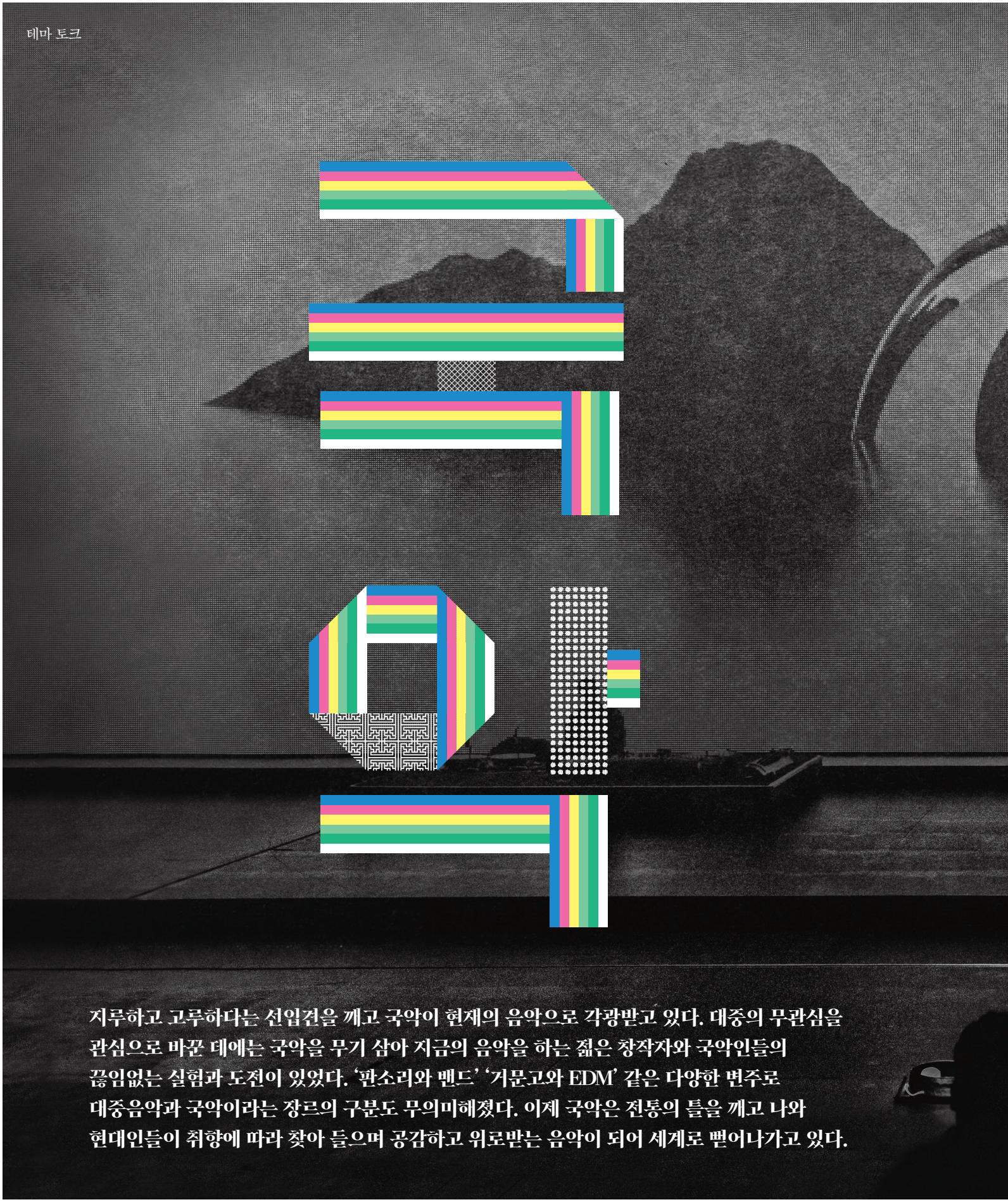
62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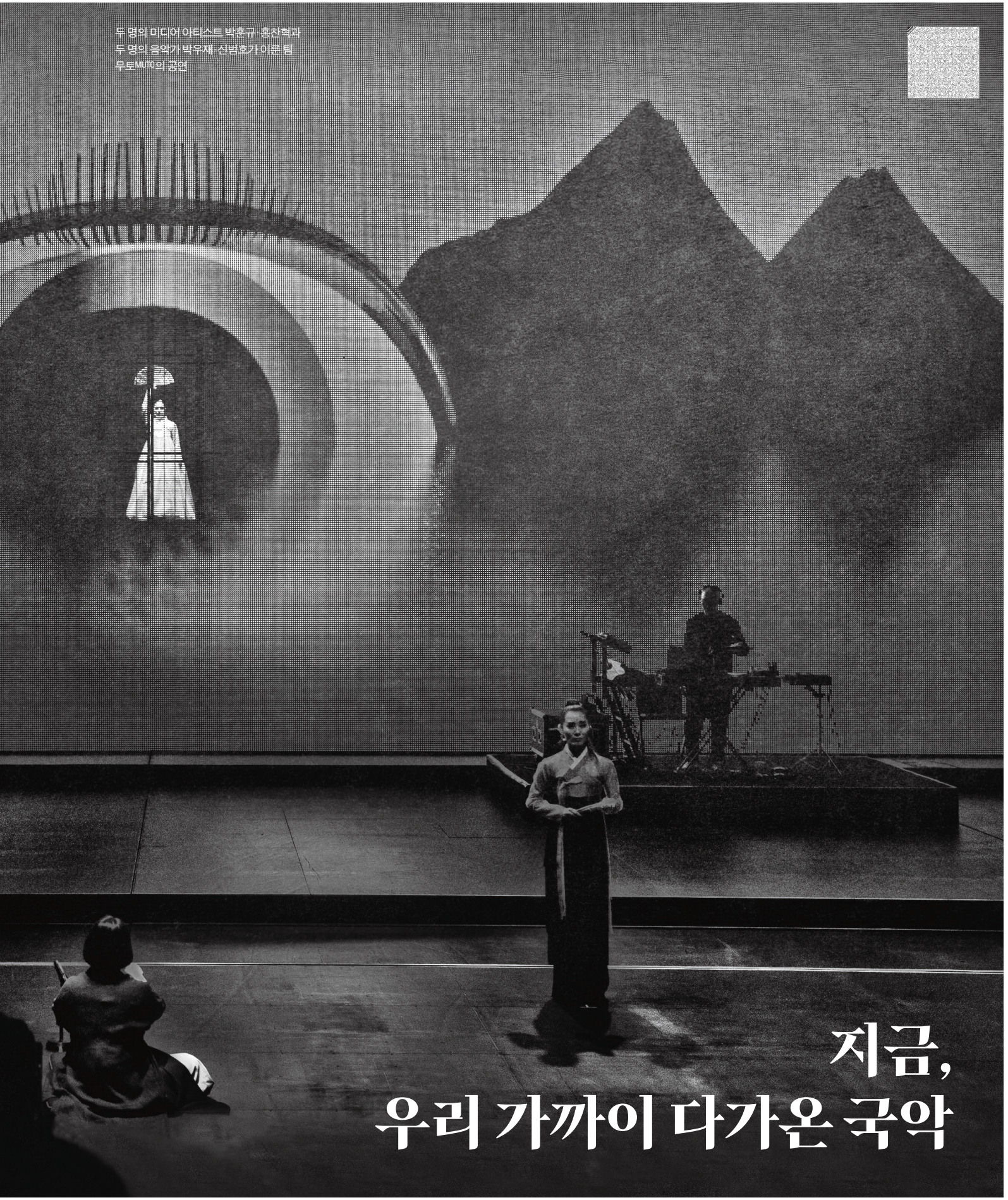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지루하고 고루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국악이 현재의 음악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중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꾼 데에는 국악을 무기 삼아 지금의 음악을 하는 젊은 창작자와 국악인들의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이 있었다. '판소리와 밴드' '거문고와 EDM' 같은 다양한 변주로 대중음악과 국악이라는 장르의 구분도 무의미해졌다. 이제 국악은 전통의 틀을 깨고 나와 현대인들이 취향에 따라 찾아 들으며 공감하고 위로받는 음악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두 명의 미디어 아티스트 박훈규, 홍찬혁과
두 명의 음악가 박유재, 신범호가 이룬 팀
무토MUTO의 공연

지금,
우리 가까이 다가온 국악

자유를 품은 현대의 국악

국악이 우리에게 한발 다가올 때는 관상용 음악이 아니라 체감형 음악으로 단단히 무장할 때다. 사물놀이가 대표적 예다. 많은 이는 조선에도 사물놀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음악은 1978년에 김덕수를 비롯해 남사당패의 후예들이 현대식으로 만든 '창작 국악'이다. 농촌사회에서 연주하던 농악이 전신이다. 이후 사물놀이는 국악을 대표하는 음악이 됐고,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국악, '오늘'을 먹고 진화한

우리 곁에 있던, 이제야 들리는 소리

이렇듯 시대마다 튀어나오는 국악이 있다. "국악은 지루하다" "국악은 재미없다"라는 대중의 고정관념을 뚫고 나온다. 오늘날 많은 이가 좋아하는 소리꾼 이희문이나 그룹 이날치·추다혜차지스·악단광칠·고래야 등이 그러하다. 관객은 지켜만 보며 '관상'하던 국악이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국악의 재미를 '체감' 중이다. 이들은 우리가 잘 모르던 국악판을 띄우는 부력浮力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사실 국악만큼 대중에게 지독한 고정관념과 시선을 받는 음악도 없다. 장르 불문하고 음악을 애호하는 소설가 장정일도 저서 《악서총람》에서 "국악은 한국인의 음악이지만, 한국인과 가장 거리가 먼 음악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국악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됐지만, 국악의 부상에 지렛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평소 '말없는 사람의 한마디'와 '말없던 사람의 한마디'가 달리 느껴지듯, 우리가 한 켠으로 멀리 밀어둔 음악이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안고 나오니, 변신의 폭이 어떤 음악보다도 크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인기 비결을 묻는다면 나는 "당신의 시선"이라고 답하고 싶다.

오래된 음악

앞서 말한 대로 관상용 음악에서 체감형 음악으로 바뀐 데에는 장르의 전환도 큰 이유다.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창작 국악은 민요나 판소리 등 성악류가 많다. 국악에는 그 외 가야금·대금 같은 악기가 중심인 기악 장르도 많다. 하지만 음악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악기로만 구성된 음악보다, 목소리와 가사가 있는 성악 장르가 더 강세를 보인다. 흔히 '대중음악'이라 하는 음악이 '가요'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빠르겠다.

시대마다 기존의 국악을 새롭게 도금하는 음악가와 그룹이 있는데, 통계를 봐도 그러하다. 2000년대에는 기악 중심의 앙상블이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가 되면서 '소리꾼의 시대'가 열렸다. 전통 소리꾼을 보컬로 앞세운 그룹이 활약하기 시작했고, 대중매체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소리꾼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던 '새로운 소리'를 들려줬고,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던 '모르던 소리'를 들려줬다.

다시, 다양한 옷을 껴입고 나타난 한때의 대중음악

국악을 대하는 예술가들의 생각과 자세도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국악 자체가 대중화를 위해 수술대 위에 오른 음악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국악이 다른 예술 장르에 변화를 주는 수술 용품이 되기도 한다. 소리꾼 이희문과 나눈 인터뷰에서 이러한 느낌은 더 짙게 다가온다.

"'전통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지금 현대라는 시대와 도시라는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전통이 없는, 없어진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통'이란 역사적 산물이라고, 또 그래서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추구할 수 있는 무기, 혹은 어떤 예술의 현대성을 도모하는 숨은 무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국악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물에 국악이라는 음악을 전면화하지 않는다. 국악의 대중화 작업이 한창이던 1980~1990년대에는 창작 국악에도 '전승'과 '보존'이라는 강령이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교훈도 똬리를 틀고 있었다.

지금의 예술가들은 자유롭다. '전면화해야 하는 국악'보다는 '요소로서의 국악'을 선택해, 대중이 좋아할 만한 틀에 국악을 부분적으로 넣는다. 치밀하고 전략적이다. 예를 들어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도 도입부는 귀와 몸의 리듬감을 잡아끄는 베이스기타의 라인이 판소리 가락보다 먼저 나온다.

관객의 취향 변화도 중요했다. 2000년대부터 인터넷의 발달은 전 세계에서 독특한 음악을 찾아 듣는 '월드뮤직 청취족'의 성장을 도모했다. 최근에는 21세기의 DJ, 우연성의 DJ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우리를 국악의 길로도 안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평론을 하는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문화계에 주는 영향을 말해 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나는 이러한 세속의 원리와 흐름이 지금의 국악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실 국악은 세속의 음악이었다. 속세의 풍경이 담겨 있고, 인간이 세속을 살아가며 느끼는 희로애락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음악은 '한때의 대중음악'이었다. 하지만 잊히고 멀어졌다. 그 음악이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세속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각광받는 국악은 고정관념과 싸워온 음악투사들, 새로운 문화를 찾고 즐기는 관객의 움직임이 지은 21세기 새로운 음악의 집이 아닐까 싶다.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객석》편집장

국악을 무기로 '지금의 음악'하는 사람들

신대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다. 국악을 주종목으로 활동하던 음악인들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땅'을 밟고 있다. 무가巫歌(무속인이 굿을 하며 구연하는 사설과 노래)는 밴드(추다혜차지스)와 결합했고, 판소리는 팝(이날치)과 만났다. 활로 켜는 거문고는 EDM(무토MUTO)과 어우러졌다. 고된 항해 중에 발견하는 신대륙엔 장르의 구분도, 음악의 정의도 없었다. 규칙은 사라지고, 문법은 깨졌으며, '발칙함'이 남았다.

새로운 국악을 이끈 주역들

새로운 땅을 밟은 음악인

2017년 미국 공영 라디오 NPR 〈Tiny Desk〉에 한국 뮤지션 최초로 출연해 주목받은 민요 록밴드 씽씽은 대중에게 '조선팝' '조선의 이단아'로 불린 첫 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후 전통을 재해석해 자신들의 이정표를 세우는 무토·악단광칠·이날치·추다혜차지스를 비롯한 여러 팀도 이름을 알렸다.

전통의 경계를 넘나든 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1980년대부터 국악과 대중음악의 긴밀한 만남이 이어졌다. 1990년대 어어부프로젝트·황신혜밴드 등 국악의 정서를 받아들인 홍대 인디 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자, 국악의 지평을 넓힌 팀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잠비나이·고래야가 대표적이다. 2009년 결성해 2010년 첫 음반을 낸 잠비나이는 피리·거문고·해금 등의 국악기와 드럼·베이스·기타 등의 양악기를 혼용한다. 2010년 데뷔한 고래야도 국악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밴드로 주목받았다. 국악기인 대금·거문고와 함께 기타를 사용하고 보컬을 입혔다. 2020년 씽씽에 이어 〈Tiny Desk〉에 출연했다.

이 무렵 국악의 변주가 주목받아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잠비나이 멤버 김보미(해금)는 "이전에도 다른 장르와의 협업은 지속적으로 시도됐다. 다만 그 방식이나 장르적 한계가 명확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방식으로 음악을 해석하고 취향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경계를 지우는 시도로 이들은 종종 '선구자'로 불리기도 한다. 경계를 밟든, 경계를 넘어서든 국악의 테두리 안에서 자생한 음악인에게 장르의 조화는 의도가 아닌 시도에 가까웠다.

국악을 전공했지만, 대중음악을 들으며 자란 경험은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자양분이 됐다. 잠비나이의 이일우(피리·기타)는 중학교 때부터 국악

잠비나이

을 전공하고, 대학에선 록밴드를 하며 국악과 밴드음악을 겸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 경계를 넘나들 수 있었다. 씽씽의 여성 보컬로 활동한 이후 추다혜차지스를 결성한 추다혜는 다양한 활동과 시도를 통해 지금의 길을 찾은 사례다. 그는 씽씽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가 양악기와 어울림을 알게 됐다. "내가 가진 민요에 대한 애정과 정서가 밴드와 접목될 때 새로움을 발견하고 가사가 가진 진정성도 잘 풀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통의 '대중화' '재해석'을 기치로 내걸고 뛰어든 팀도 있다. 국악단체 정가악회의 기획 그룹으로 결성된 악단광칠이다. 악단광칠은 다른 그룹과 달리 오직 국악기와 우리 소리만으로 국악의 한계를 넘어 지금의 음악을 만든다. 이들은 국악계에서도 낯설고 생소한 두 장르, 황해도굿과 서도민요를 결합했다. 보컬 홍옥은 "낯선 두 장르의 결합은 문학적·음악적으로 가치가 있는 만큼 여기에 강렬한 사운드를 더해 대중음악적으로 풀어낸다면 새로운 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악기로 현재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국악은 이들에게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했다. 악단광칠은 황해도굿과 서도민요를 혼합해 대중음악을 지향하면서도 두 가지 원칙은 고수했다. 전통의 형식을 갖출 것, 국악기를 버리지 않을 것. 대중적 사운드를 만드는 것과 대중이 대중음악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악기·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무토는 음악과 시각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연예술을 선보인다. 무토의 박우재(거문고)는 전통은 소재라고 생각한다. 장르의 소재를 잘 다루는 기술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도

추다혜차지스

예술 작품의 차별성을 추구한다. 그는 "장르의 균형을 맞추는 고민을 하며 음악적 실험을 하"고 있다. 고래야의 경이(퍼커션)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국악을 기반으로 그와 함께 무언가를 결합하자는 생각으로 밴드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는 음악을 만들 때 이것이 국악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만들지 않는다.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표현을 하는 데 전통악기가 잘하는 장단을 사용할 뿐이다.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을 시도하는 밴드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본질'과 '원형'을 지킨다는 점이다. 고래야의 멤버 김초롱(퍼커션)은 "음악을 만들 때 중심은 한국의 전통 장단을 변형하지 않는 것"이라 했고, 이날치 멤버 이철희(드럼)도 "판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음악이 잘 어우러지도록 작업한"다. 악단광칠 김약대 단장(대금)은 "국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국악을 잘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시도를 하고, 경계를 넘어 음악에 차용하면 그것 나름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10여 년간 새로운 시도를 이어온 잠비나이도 마찬가지다. 음악에 사용되는 전통의 재료가 근거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의미를 찾고 주의를 기울이며, 국악기와 국악을 현재와 어색하지 않게 녹이며 음악을 만들고 있다.

악단광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한 이들의 음악은 각기 다른 길을 제시한다. 무토 박우재는 오롯이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규칙 없이 '기존'을 따르지 않는다. 그가 음악적으로 실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차별성이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 추다혜는 "내가 하고 있는 민요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전통음악으로 분류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각자가 내는 고유의 소리가 있고, 만드는 음악이 있는데 틀에 가두기를 바라는 시선이 있다. 무가를 기본으로 두되 틀에 맞추기보다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을 추구한"다. 잠비나이의 이일우는 실험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대중에게 설득력을 갖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향을 바라본다. "실험적이고 독특하지만 어렵지 않은 음악, 실험에서 끝나지 않고 설득력을 갖는 음악이 잠비나이가 추구하는 음악이다"라고 말했다.

요즘 국악판에서는 이미 장르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무가를 요소로 둔 추다혜차지스는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알앤비 & 소울'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음악인 스스로도 자신의 음

악을 전통음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국악을 '무기'로 '지금의 음악'을 하는, 조금은 새롭고 독특하고 특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작품일 뿐이다. "전통적 악기와 소재로 현재의 음악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악단광칠의 그레이스박(아쟁)은 "악단광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악기와 목소리로 퓨전도 무엇도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음악, 지금의 정신을 꺼내고 있는 것"이라며 "전통적 악기와 소재를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성을 받아들일 준비된 대중

오랜 시간 이어온 다양한 시도는 많은 사람을 변화의 길로 이끌었다. 잠비나이를 비롯해 지금의 이날치·추다혜차지스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성장과 성취는 '대중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래야

이날치

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현재의 음악 신은 굉장히 다양하고, 관객의 다양성이 성장한 시대"이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음악을 찾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마니아가 두각을 나타내는 때"라고 본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의 음악을 '조선팝'이라고 하거나, 악단광칠을 '접신록' '작두록'으로 부르는 것 역시 대중의 선택이었다. '특정 가수나 장르'로만 편향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음악에도 귀를 여는 '준비된 대중'은 대중음악계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밑거름이 됐다.

불씨가 타오를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업계에선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은 더 늘어나고, 국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장르가 끊임없이 파생되리라 본다. 악단광칠의 김약대는 "국악의 형식이나 문법이 아니라도 국악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다. 국악의 특성을 표현하고 드러내면 장르에 묶이지 않는 다양한 음악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한때의 흐름'으로 그치지 않도록 더 많은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 몇몇 팀의 등장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김보미는 "더욱 많은 팀이 나와야 하고 다양한 음악을 표현해야 국악계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강조한다. 이들 역시 지금의 행보를 이어갈 생각이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현재'의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예전의 기준으로 규정된 장르를 넘어 오로지 음악으로서 공감과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그려낼 미래는 지금의 또 다른 모습이다. 무토의 박우재는 "지금의 이 들끓는 실험 열기는 결국 미래의 전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고승희** 《헤럴드경제》 기자
사진 제공 **더 텔 테일 하트, BELLA UNION, 추다혜, 플랑크톤 뮤직, 국립극장, 하이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힘 실어주기

색다른 국악을 창작하는 팀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국악을 찾아 듣는 팬도 늘어나며 국악계에 훈풍이 분다. 반면 다양한 창작자가 공연을 선보일 무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공공 기관에서는 음악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작 국악인 지원 사업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더 많은 무대가 필요합니다. 무대를 만드는 일은 창작자가 할 일보다는 정책적 지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년 국악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어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창작이 꾸준해야 하고요. 무대 한 번 세우는 지원으로는 부족하고, 긴 호흡으로 키우는 지원이 필요해요." 국악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악을 토대로 활동하는 추다혜와 한승원은 여전히 무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원만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국악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들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창작자에게 활로가 되길 바라며 여러 시도를 해왔다. 음악산업 종사자와 전통음악 창작자가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대중이 어디서든 국악을 들을 수 있게 지원하고, 청년 국악인의 창작을 유도한다. 이러한 지원이 씨앗이 돼 언젠가 다양한 국악을 카페에 앉아서도 들을 수 있기를 상상하며 국악 지원 사업을 정리해 봤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0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팀 거문고자리 공연

무대가 다른 무대로 이어지다

파격이란 말이 따라 붙는 소리꾼 이희문, 밴드 이날치의 결성을 주도한 장영규, 추다혜차지스를 이끄는 추다혜는 민요 록밴드 씽씽 출신이다. 씽씽은 2015년에 결성됐고, 그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아트마켓 개막 공연에 참여했다. 서울아트마켓은 국내 공연예술 작품을 해외 전문가에게 홍보해 창작자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공연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에 참여한 씽씽은 이후 뉴욕 음악 축제 '글로벌페스트globalFEST' 무대에 오르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에머슨 도쉬 갤러리'에서 공연하는 등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원 사업에 팀이 참여하고 해외 무대로 연결돼 국내에도 이름을 알린 예다. 씽씽은 2018년 10월 해체 후 각자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에게 색다른 국악을 알리고 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전통음악 단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저니투코리안뮤직Journey to Korean Music' 프로그램으로 창작자를 지원한다. 일명 한국음악으로의 여행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54개국에서 약 180명의 해외 음악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한국 전통음악과 문화를 소개했다. 달음·더튼·동양고주파를 비롯한 많은 팀이 이를 통해 해외 무대를 경험했다. 이를 계기로 동양고주파는 세계 음악 박람회 '2020 WOMEX'의 쇼케이스 무대에 올랐다. 2021년 공모에서는 리마이더스·백다솜·삐리뿌 등이 선정됐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도 국악인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5월 '2021 전통공연예술행사 해외진출지원' 사업 일환으로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된 단체는 최대 2,5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아트마켓·축제 등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공연 영상·영문 소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공연에 어려움을 겪는 12개 팀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 총 32개 라이브 실황 영상과 28개 홍보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그중 백다솜과 잠비나이는 공모를 통해 제작한 영상이 발판이 돼 미국 음악 축제 '2021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쇼케이스 무대에 올랐다. 지원 무대가 다른 무대의 꼬리를 물며 창작자가 공연을 이어가도록 돕는 양상이다.

여성 5인조 창작 음악 그룹 더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음악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세계 음악 시장에 통하는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해외 반응이 아무래도 더 좋아요. 그들에게는 처음이니까 음악 자체로 이해하는 것 같고, 참여형 음악이라 축제에서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라고 해외 무대에서 공연한 소감을 말했다.

지원은 계속된다

우리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공연의 반응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좋다는 더튼의 소감은 희망적이면서도 또 하나의 과제를 남긴다. 색다른 국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알려야 할까. 국립국악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한 공연예술 환경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올해 '2021 Gugak IN 人' '국악기 디지털 음원' '사랑방중계' '국악아티스트 랩' 온라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2021 Gugak IN 人'은 국악인 30팀의 음원을 바탕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지원한다. 6살 어린이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까지 다양한 경력의 국악인이 참여했다. 뮤직비디오 30편은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에 한 편씩 공개된다.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에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상업적 유통망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국립국악원이 배급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만큼 창작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공진단이 공모하는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청년 창작자를 직접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창작자들에게 4개월간 소정의 창작 활동금을 지급하고, 연습실·멘토링·공연 기회 등을 제공한다. 2020년 첫 공모에 선정된 거문고자리·공칠·김보미를 비롯한 청년 예술인 3명과 단체 4팀은 국악과 아카펠라·택견·스트리트 댄스 등을 조화한 시도를 선보였다. 올해도 면접심사 결과 5명과 2팀이 선정됐고, 공진단은 "기존 활동 경력이나 창작품의 완성도보다는 도전적이고 실험적 창작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셀 수 없이 많은 국악인은 새로운 음악을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국악'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생계가 불안정하면서도 우리 음악을 고민하는 창작자, 창작자를 지원하는 예술기관·단체, 음악과 관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공연장과 매체, 그리고 꾸준히 우리 음악에 박수를 보내는 관객까지, 많은 이가 긴 시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일 테다. 지원과 결실, 관객의 호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꾸준히 힘을 실어주길 기대해본다.

글 **장영수** 객원 기자 | 사진 제공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나다운, 나를 넘어서는

차세대 거문고 솔리스트이자 개성 넘치는 창작자로서 거문고의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는 박다울·심은용·황진아가 한 무대에 오른다. 프로젝트 팀 '쓰리고'로 2021 여우樂 페스티벌(이하 여우락)에서 〈고고고〉라는 음악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을 만났다.

개성 넘치는 거문고 솔리스트 삼인방, '쓰리고'

개성 넘치는 음악 색깔을 지닌 세 명의 거문고 연주자 박다울·심은용·황진아가 의기투합한 프로젝트 팀 쓰리고는 2021 여우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우재가 직접 기획한 '디렉터스 픽'의 세 팀 중 하나다. 거문고를 전공한 선배이자 동료로서 페스티벌 디렉터가 선택한 아티스트들의 조합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 이들은 루프스테이션[1]을 사용해 음악을 만드는 공통점을 가진다. 쓰리고의 무대 〈고고고〉는 젊고 신선하며 감각적인 거문고 솔리스트의 삼색 매력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며 거문고 사운드의 새로운 확장을 이루는지 기대하게 한다.

Q 세 분은 각자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서로 다른 밴드 출신이거나 현재도 앙상블 팀에 소속돼 활동하는데요. 어떻게 한 팀으로 이번 여우락에 참가하게 됐나요?

1 루프스테이션(Loop Station): 일정한 구간을 반복 재생하는 곡 구성 방식과 함께 그러한 악기를 뜻한다.

쓰리고

프로젝트 팀 쓰리고. 왼쪽부터 황진아·박다울·심은용

쓰리고 2021 여우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박우재 선배가 셋이서 함께 여우락 페스티벌에 공연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하셨어요. 거문고 솔리스트들이 최근 많이 생기고 국악계에서 거문고가 예전보다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우재 선배 역시 거문고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 개성이 강한 솔리스트들이 모이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Q 팀명 '쓰리고'는 어떤 뜻이고, 음악회 이름이 〈고고고〉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쓰리고 거문고란 악기는 현금玄琴의 순우리말로 '거문'은 검다는 뜻이고 '고'는 금琴, 국악에 쓰이는 현악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셋이 거문고 연주자니까 세 개의 거문고라는 의미로 '쓰리고'라고 팀명을 지었고요. 공연 이름도 결국 거문고 세 개가 있다는 의미에서 '고고고'로 지었습니다. '고'라는 글자에 좋은 뜻이 많습니다. 높을 고高도 있고, 살필 고考도 있고요. 영어로 가자라는 'go'도 있네요.

Q 이번 음악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쓰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모두 8곡을 무대에 올리는데요. 각자의 대표곡을 한 곡씩 연주하고요, 다섯 곡은 3중주로 연주합니다. 이 중 세 곡은 각자의 기존 곡을 한 곡씩 셋이 같이 연주할 예정이고, 나머지 두 곡은 이번 무대를 위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Q 원래 한 팀이 아니었고 각자 활동 배경이나 색깔이 다른, 개성 넘치는 솔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회를 준비하려니 어려운 점도 많을 텐데요.

쓰리고 어려운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곡을 가지고 오더라도 원작자의 의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곡의 잠재성이 다른 두 연주자의 색깔과 즉흥성에 힘입어 발전되고 확장돼요. 곡이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같은 거문고 연주자로서 저에게 없는 다른 두 연주자의 장점을 옆에서 보고 배우며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자신을 다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도 갖게 돼 좋습니다.

세 명의 공통점은 거문고 솔리스트로서 루프스테이션(이하 루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도 루프가 사용되나요?

쓰리고 루프는 일정 구간의 소리를 반복 재생해 시간차를 두고 쌓아나가는 기법입니다. 한 명의 연주자가 즉석에서 여러 패턴을 기계에 녹음하고 재생해 여러 명이 연주하듯 보입니다. 선율이 쌓이는 거죠. 이번에도 곡에 따라, 특히 솔로곡에서 루프를 사용합니다. 삼중주를 할 때는 루프가 하던 역할을 세 사람이 단순하게 나눠 반복하지는 않으려 해요. 루프가 내던 소리가 다른 거문고 연주자의 손에 맡겨질 때 훨씬 더 확장된 소리가 구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문고 연주자로서 루프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 세 분의 음악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쓰리고 거문고 특성상 록 성향이 내재합니다. 거문고가 술대로 치는 악기다 보니 타악적 특성이 강하고 리듬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록 특성과 연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세 분은 거문고 연주자이면서도 창작자로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어 더욱 주목받습니다. 창작자로서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가요?

심은용 제 안에 내재된 창작 의지는 대학 시절부터 연극이나 영상·무용 등 다른 예술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표출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제 음악, 제 거문고가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판과 활동을 찾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분명한 점은 '내'게 의미가 있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과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솔로 앨범을 내면서 나 자신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된 점은 '아, 나는 다른 누군가의 시선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음악, 제가 듣기에 좋은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 역시 듣는 청중, 대중의 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나 자신의 온전한 감정과 전하고 싶은 '내' 소리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또 저는 거문고라는 악기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어디서든 이러한 거문고의 매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문고 연주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저도 그 일원으로서 거문고의 매력과 제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황진아 다소 추상적이고 담론에 속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창작자로서 궁극적으로 영매 혹은 무당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제 안의 것을 드러내고 저를 보이는 것보다 듣는 이가 제 음악을 통해 그 음악 너머 다른 세계를 만나기를 바라요. 청중이 제 음악을 들을 때 처음에는 황진아가 보이겠죠. 이후에는 제 음악이 통로가 돼 듣는 이의 기억이나 어떤 풍경 혹은 장소 등 다른 세계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음악이 일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음악을 창작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태도는 직관입니다. 장르를 나누고 음악을 말로 전달할 때, 혹은 청중이 음악을 접할 때 우리는 작곡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용된 음악적 주제나 요소 등이 무엇인지 자꾸 언어로 사고하고 설명하지만 그런 필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듣는 이에게 제 음악이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곡에 대한 설명, 특히 음악적 요소에 대해 자세하게 쓰지 않고 작품에 영감을 준 상황이나 배경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데 그칩니다. 청중이 직관적으로 제 음악을 받아들이길 바라기 때문이죠.

박다울 익숙하지만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요. 또 음악을 만들 때 머릿속에서 특정한 규범에 얽매이는, 일종의 검열을 거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보다는 최대한 직관적으

로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 안에서 그간 배운 것들로부터 해방돼 제 경험을 직접 그대로 녹여내고 싶어요. 제 삶과 제 음악의 결에 간극 없는 일치를 만들어 제 음악을 들을 때 누구나 '박다울 음악'임을 알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음악을 쓸 때는 이렇듯 직관에 충실하고요, 음악을 무대에서 전달할 때는 음악을 어떻게 상징화할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소 음악 외적 측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음악 내적으로 거문고가 한계 짓는 창작의 요소가 이미 개발되고 충분히 실험됐는데 제가 새롭게 한다 한들 얼마나 새로울 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반대로 대중에게 거문고 음악은 우리 내부에서 아무리 익숙한 것을 보여줘도 새롭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합니다. 결국은 청중에게 음악을 어떻게 전달하고 보여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적 측면, 예를 들어 의상이나 퍼포먼스 같은 이미지나 글로 풀어내는 전달 방식 등에서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글 **이소영** 음악평론가 | 사진 제공 **국립극장**

2021 여우락 페스티벌 쇼케이스. 음악그룹 나무가 공연하고 있다.

2021 여우락 페스티벌의 새로운 변신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2021 여우락[2]'은 '우리 음악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공연예술계, 특히 국악을 토대로 만드는 음악이 두각을 드러내는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기존 예술감독과 음악감독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벗어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1인 체제를 도입해서 눈길을 끈다. 올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아티스트 박우재가 맡는다. 박우재는 독창적인 거문고 연주 방식과 음악으로 주목받으며 음악·무용·미디어아트 등 폭넓은 장르를 오가며 개성 넘치는 예술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다.

여우락은 7월 2일부터 24일까지 23일간 총 4개의 콘셉트, 13개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4개의 콘셉트 중 첫 번째, '디렉터스 픽Director's Pick'은 박우재 디렉터가 직접 기획한 세 개의 공연으로 구성된다. 박우재가 소속된 그룹 무토MUTO와 입과손스튜디오가 함께하는 개막작 〈두개의 눈〉과 거문고 솔리스트 3인방, 쓰리고의 〈고고고〉와 음악그룹 나무의 〈물을 찾아서-Remastered〉다. 두 번째 콘셉트인 '여우락 컬래버'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신선한 협업과 예상 밖 장르 간의 예술 조합이 이루어진다. 신박서클과 재즈피아니스트 윤석철이 만난 〈불안한 신세계〉, 월드뮤직그룹 공명과 일렉트로닉 록밴드 이디오테잎이 만나는 〈공TAPE-Antinode〉(폐막 공연), 지난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며 아쉬움을 남긴 황해도 대동굿 만신 이해경과 사진작가 김영호의 〈접신과 흡혼〉, 그리고 정가의 명인 강권순과 대중음악계의 거장 베이시스트 송홍섭, 전자음악·재즈로 전통음악을 재창조한 신노이가 함께하는 〈나와 일로一路〉가 무대에 오른다.

세 번째 콘셉트인 '여우락 초이스' 에서는 독자적 음악 세계로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구성되는데 추다혜차지스와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 종묘제례악을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재해석한 그룹 해파리HAEPAARY의 공연이 펼쳐진다. 네 번째 콘셉트, '디렉터스 랩Director's Lab'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우재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각 공연별로 32명의 한정된 인원만 누릴 수 있는 2021 여우락의 은밀하고 야심만만한 기획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관 **국립극장**

2 '여기 우리 음악(樂)이 있다'

여전히 흥미로운 국악 퍼뜨리기

국악방송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국악방송은 예능·교양·다큐멘터리·뉴스·콘서트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국악을 깊이 있고 다채롭게 알리는 매체다. 라디오·TV·유튜브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국악 이야기를 퍼뜨려 전통의 맥을 미래로 잇는 교두보를 자처한다. "회사,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국악 〈플레이리스트Playlist〉를 유튜브에 올려 젊은 국악인이 만든 창작곡을 알리고, 국악 명인과 중견 국악인, 젊은 국악인 모든 세대를 초대하는 〈국악콘서트 판〉 무대를 기획해 우리 음악의 다양성을 전한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전통 속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여전히 흥미로운 국악이 더 널리 더 깊게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누리집 igbf.kr | **라디오** 서울·경기 FM 99.1MHz | **IPTV 채널** KT olleh tv ch.251, LGU+ ch.240 | **유튜브** Gugaktv

국악방송 TV 〈국악콘서트 판〉 갈무리

국악 신예 발굴하기

'21C한국음악프로젝트'와 '신진국악실험무대'

'21C한국음악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창작 국악제'다. 국악방송이 주관해 '한국음악'을 창작하는 젊은 국악인을 찾는다. 밴드 경로이탈·궁예찬을 비롯한 740명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창작곡이 120곡에 달한다. 8월 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021년 프로젝트에 지원한 10팀이 공연을 선보인다. 7월 12일부터 국악방송 누리집 '공개방송 신청' 메뉴에서 누구나 관람 신청할 수 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신진국악실험무대'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국악을 토대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조화하고 새로운 음악을 찾는 시도에 거리낌 없다. 고래야·고영열·숨·잠비나이를 비롯한 107팀이 이 무대에서 공연했고, 올해도 7월 말부터 10월까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groove&·도담·황지영 등 여러 팀이 무대에 오른다.

21C한국음악프로젝트 kmp21.kr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kotpa.org

2020 신진국악실험무대 참여한 김주리

지금, 국악

21세기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곳

서울 속의 국악! 국악 속의 서울!

서울국악축제

"서울국악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국악축제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2019년 개최됐다. 관록 있는 명창부터 색다른 감각으로 국악을 알리기 시작한 신예가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전한다. 제1회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안숙선·유태평양·이춘희 등의 공연을 보고 '토크콘서트' '전통공예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동안 몰랐던 국악 지식과 국악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은 축소됐지만 공연을 중심으로 축제는 계속된다. 제3회 〈2021 서울국악축제〉는 오는 9월 중 이틀간 열릴 예정으로 소규모 대면 방식과 온라인 송출을 병행한다. 시내 곳곳에서 소규모 공연을 열어 서울을 국악으로 잠시나마 채울 예정이다.

누리집 seoulgugak.com

2020 서울국악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갈무리

사계절, 국악과 함께

서울의 국악 전문 공연장

서울에서 국악 공연을 상시 개최하는 국립국악원·남산국악당·돈화문국악당 세 곳을 소개한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과 무용을 보존하고 많은 사람이 국악을 누리도록 꾀하는 국립음악 기관이다. 신명 나는 국악과 흥미진진한 동화로 꾸민 어린이 국악극 〈토요국악동화〉와 같은 상설 공연, 그리고 기획 공연을 개최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남산국악당은 300석 규모의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 연습실·야외마당·체험실을 갖춰 국악인의 모임을 유도하고 공연도 연다. 7월 10일에는 공연 〈성윤성의 장고춤 네트워크-고고鼓go〉를 진행한다. 돈화문국악당은 140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과 야외공연장으로 구성돼 있다. 7월 매주 금요일에는 〈2021 시민국악강좌〉가 열려 전문 국악인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 gugak.go.kr | **서울남산국악당** hanokmaeul.or.kr | **서울돈화문국악당** sdtt.or.kr

서울남산국악당 기획공연 〈2021 젊은국악 도시樂〉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국악을 색다르게 변주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선보이는 국악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무대는 어디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이들의 활동이 끊이지 않게, 무대에 오를 수 있게, 자신의 음악을 대중에게 들려줄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방송·발굴 프로그램·축제·공연장이 있다.

글 **장영수** 객원 기자 | 사진 제공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서울시 문화예술과, 서울남산국악당**

유쾌한 이야기꾼

만화가 주호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시회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화가 아버지와 만화가 아들의 전시라면 더욱 특이하다.
전시 〈호민과 재환〉(서울시립미술관, 5. 18~8. 1)은 다른 길처럼 보이는 만화와 미술이,
무언가 함께 해본 기억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작업이 사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하게 해준다.
아버지와 함께 전시를 하게 된 주호민 작가의 기분은 어땠을까?
기자 간담회에서 "신기하기도, 엄청나게 부담스럽기도" 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럴 수밖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버지 주재환은 1980년대 미술 단체 '현실과 발언'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작품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
원로 화가와 공동 전시를 하는 건 누구에게라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아버지라니.
부담스럽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연대를 느끼게도 해준 이번 전시를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유쾌한 컬래버

"2년 전쯤 아버지에게 '아들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 함께 전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종종 왔습니다. 제가 연재할 때는 여력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지만, 연재가 끝난 후 구체화됐습니다. 아버지와 무언가를 함께 한 기억이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하게 돼 좋았습니다."

〈호민과 재환〉에서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주재환 작가의 작품도, 부자의 작품을 하나의 테마로 엮어낸 전시도, 마치 웹툰 화면처럼 번쩍이는 라이트패널로 본 주호민 작가의 커다란 작품도 인상 깊었다. 필자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마음을 움직인 건 유튜브 형식으로 편집해 상영한 '주재환 월드컵 16강'이다. 부자가 함께 앉아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은 전체 전시를 압축해 놓은 것처럼 유쾌했다.

주재환 작가는 1941년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해설에서는 "1990년대 몇몇 그룹전에 출품하며 근근이 작품 활동을 지속하던 작가는 2001년 아트선재센터 개인전을 통해 특유의 자유롭고, 어눌한 형식을 바탕으로 유머러스하며 비판적 시선이 공존하는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계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소개했다. 주재환 작가가 60세 되던 2001년 개최한 첫 개인전 제목은 〈주재환 작품전 1980-2000, 이 유쾌한 씨를 보라〉다. 쇼핑백·비닐·노끈 같은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는 물론 치즈나 단무지와 같은 평범한 재료를 이용한 콜라주 작업은 개인전 제목처럼 '유쾌'했고, 그렇게 만든 작품은 세태를 풍자했다.

주호민 작가의 만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인터넷 포털 야후에 연재한 〈무한동력〉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당대 젊은이의 곤궁한 삶을 스물일곱 졸업반 대학생 장선재의

>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 그것을 어둡지 않게, 재밌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1인칭 시선으로 풀어낸다. 만화비평가 김낙호는 〈무한동력〉을 "갑갑한 무력감에 짓눌리는 모습을 잔인하게 해부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름대로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주재환 작가의 작품이 담고 있는 유쾌함과 풍자가 주호민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작업하시는 모습을 봐왔고, 집에 항상 도록을 비롯한 재미있는 책이 많았기 때문에 보는 게 놀이였고,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성격도 굉장히 유머러스하신데 그런 점도 꽤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재환 작가는 미술이라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주호민 작가는 만화라는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던 두 작가가 한 공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저희의 공통점이 있죠. 아이디어를 빠르게 펼치고 오랫동안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어둡지 않게, 재밌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작품은 이미지와 글의 결합으로 한 번에 탁 의미가 전달되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만화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속극을 만드는 입장이니 천천히 준비하는 편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항상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재미있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재미있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웃음)"

다양한 별명만큼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다

주호민 작가는 1981년에 태어났다. 1980년에 '현실과 발언'을 창립한 아버지의 작업을 늘 지켜보던 주호민은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게 됐다. 그림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은 연습장에 볼펜으로 그리는 가벼운 패러디 만화로 구체화됐다. 2002년 군 입대 전 아마추어 인터넷 만화 사이트 '3류 만화 패밀리'를 통해 연습장 만화를 발표했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스타일의 패러디 개그 만화가 주를 이뤘다. 〈호민과 재환〉에서 당시 그린 연습장을 공개했다. 정식 연재 만화가 아니라 완성된 형식보다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시에 채택됐다.

"2002년에 3류 만화 패밀리라는 사이트에 자유롭게 그린 만화가 올라오는 것을 보며 큰 흥미를 느꼈어요. 취미로 그리던 만화를 스캔해서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군대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전역 후 군 생활을 그린 만화를 올렸고, 이것도 반응이 좋아 진로를 정했어요."

주호민은 군 제대 후 그린 군대 일상 만화 〈짬〉을 2005년《스포츠투데이》 웹서비스 '스투닷컴'에 연재하며 데뷔한다. 〈짬〉은 군대와 군인을 장르의 부분집합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의무로 거쳐가는 군의 일상을 만화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섬세한 관찰과 주호민식 '유쾌한 씨'의 출발점이다. 주호민은 〈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유머러스한 캐릭터로 탄생시킨다. 이후 후속작에서 주호민식 '유쾌한 씨'가 등장해 이야기를 끌어간다. 주호민 작가의 세계관, 더 확장해 '재환과 호민' 두 작가가 지닌 세계관의 핵심은 '유쾌한 씨'다.

주호민 〈죽어서야 로얄층〉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호민과 재환〉 전경

"독자가 작품을 보고 있는 시간만큼은 현실을 잊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극 중 캐릭터가 실제 있을 법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는 유머가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인간적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유머 아닐까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즐겨 보는데요. 누구나 해봤을 생각을 코미디언이 콕 집었을 때 웃음이 터집니다. 결국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독자와 캐릭터 간에 애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화에서도 그렇지만 작가 스스로 다채로운 캐릭터가 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답변이다. 그는 자신이 거쳐간 곳이 모두 사라졌다며 올린 트윗으로 '파괴왕'이라는 캐릭터를 얻었다. 이후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파괴왕'이라는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송에 나왔다. 유튜브에 리코더를 연주하는 영상을 올려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화를 넘어 작가 개인이 캐릭터가 되고, 유머의 주체가 된 셈이다. 의도했을까?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리코더 연주하는 영상은 정말 진지하게 연습해서 올린 건데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창에 아무말 대잔치가 열렸는데요. 저를 두고 츄파춥스, 피리 부는 칸쵸라며 놀려요. 파괴왕 밈meme도 제가 몸담던 곳이 없어진 사례를 모아서 우스개로 올려봤는데, 그 후로 사람들이 뭐만 없어졌다 하면 저를 연관 짓더라고요. 의도치 않은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연재를 시작한 디지털 네이티브 작가이며 만화를 넘어 유튜브를 통해 독자와 만나고 있으니 상호작용은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2017년에 연재를 시작해 2020년에 완결한 〈빙탕후루〉 이후 신작 활동보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주호민 채널은 구독자가 21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이 구독하는 '침착맨'(웹툰 작가 이말년의 채널)에도 출연하고 있다. 이대로 크리에이터 활동에 주력하는 것일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

"만화는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유튜브도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만화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연재처가 작가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무한동력〉과 〈신과 함께〉

〈호민과 재환〉에서는 연습장 만화, 〈짬〉 〈만화전쟁〉도 소개되지만 주로 〈무한동력〉과 〈신과 함께〉가 전시의 중심을 이룬다. 〈무한동력〉은 2008년 연재 당시 '88만 원 세대'라 불린 청년 세대의 곤궁한 삶을 따뜻하게 담아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라는 대사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2008년과 2021년, 시간은 지났지만 청년세대가 여전히 어려운 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도 사실이다. 2021년 다시 보는 〈무한동력〉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만화입니다. 처음으로 그린 장편극화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의 모습을 담아냈고, 현실의 이슈를 실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현실에서 수능을 보면 만화에서도 수능을 보고, 현실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 만화에서도 취업난이 시작되는 식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라는 대사가 알려

져 있는데, 만화를 그린 13년 전에는 꿈에 방점을 찍고 쓴 대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밥을 먹어야 꿈도 꾸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꿈과 밥이 대칭되는 개념이 아닌데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볼 때마다 제 생각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만화입니다."

〈짬〉과 〈무한동력〉으로 조금씩 주목받았지만 지금의 주호민을 있게 한 만화는 〈신과 함께〉다. 〈무한동력〉 연재를 끝내고 2010년부터 네이버웹툰에 연재한 〈신과 함께〉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다양한 설화와 전설을 묶어 우리 시대의 여러 아픔을 담아낸 작품이다. 역시 이번 전시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연히 제주도 신화에 관심이 생겨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캐릭터가 많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 많아 저승편과 이승편으로 나눴고 저승편에서는 저승관을, 이승편에서는 가택신앙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승편이 특히 어려웠는데 유능한 변호사가 저승의 여러 난관을 지혜롭게 돌파하는 모습이 큰 재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결국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작가는 자신보다 똑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짜내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개의 신화를 연결해 묶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조각보를 덧대 잇는 느낌이었습니다."

〈신과 함께〉 웹툰도 독자의 사랑을 받았지만, 영화는 1편·2편이 모두 천만 관객을 넘기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만화 내용만큼 영화화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웹툰 연재가 2012년 끝났는데, 영화는 5년이 흐른 2017년에 개봉했다.

"처음 영화화 제의를 받은 것은 만화가 끝난 직후인 2012년이었습니다. 5년이 흐르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원작과는 영 다르게 나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자 무척 재미있었고, 관객 반응도 좋아서 그때부터는 감독님 찬양을 하고 다닙니다.(웃음) 〈신과 함께〉 3·4편까지 제작하기로 했고 좀 더 원작에 가깝게 드라마화도 진행 중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군대 경험을 다룬 일상 만화 〈짬〉에서 시작해 〈무한동력〉에서는 하숙집에 기거하는 20대 세 명과 하숙집 주인, 고3 큰 딸과 고1 아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과 함께〉에서는 인물도 스케일도 크게 확장된다. 〈신과 함께〉 3부작 모두 주인공보다 조연이 다양하고 매력적으로 등장한다. 1부 저승편만 봐도 39세에 죽은 주인공 김자홍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다. 하지만 김자홍이 만나는 조연은 저승차사·오방신장·저승시왕 등 매력 넘치는 인물이다.

> 꿈과 밥이 대칭되는 개념이 아닌데
>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 볼 때마다 제 생각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만화입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주인공은 그래픽도, 성우도 없습니다. '나'니까요.(웃음) 다만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 만화마다 다릅니다. 〈무한동력〉이나 〈신과 함께〉처럼 강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만화에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과 함께〉 이후 일상 만화 〈셋이서 쑥〉과 일상 반 허구 반의 〈만화전쟁〉 그리고 장희 작가가 스토리를 쓴 〈빙탕후루〉까지 작품이 이어졌다. 여전히 독자는 주호민 작가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후속작은 〈셋이서 쑥〉의 뒤를 잇는다.

"첫째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는데 10년 가까이 발달장애아의 아버지로서 느낀 바를 만화로 풀어내 볼까 합니다. 가족의 이야기이자 장애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선뜻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호민식 '유쾌한 씨'가 걷는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호민 작가는 모든 작품에 만족하면서 작업했다고 말한다. 〈신과 함께〉의 대박에 대해서도 "저는 원래 똑딱이 타자인데 〈신과 함께〉가 우연히 홈런"이 됐다고 유쾌하게 설명해 줬다. 팔순인 주재환 작가의 '유쾌한 씨'의 행보도 계속되고, 주호민 작가도 신작을 통해서 '유쾌한 씨'의 행보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

글 **박인하** 만화평론가,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
사진 제공 **주호민, 서울시립미술관**

공연 일부가 된 어린이

"관객이 드러나진 않지만 은밀하게 작품을 변주하는 어린이극을 만들고 싶어요."

가정의 달인 5월 8~9일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진행했던 어린이극 〈어딘가, 반짝〉의 이지민 연출가(사진 왼쪽)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어린이극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 성향 때문에 관람 위주로만 연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번 작품은 관객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공연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특히 10년 넘게 '체험하는 예술'을 고민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대표 사업인 '예술로 상상극장'으로 선정된 〈어딘가, 반짝〉은 수개월 동안 극작·무대미술·연기 등 공연 제작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비로소 완성됐다.

특이한 점은 일반 극장이 아니라 30명 이내의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스튜디오에서 연극이 올라가는 것. 아이들은 자리에 앉기 전, 로비 등에 비치된 그림과 이야기를 보고 자신의 신체를 종이에 그려놓는다. 배우는 이것을 활용해 공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나간다. 이렇듯 공연의 줄거리와 틀에 어린이의 생각과 체험이 쌓이는 방식으로 작품이 완성된다.

어린이극이 하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를 실험한 이번 작품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외모 기준에 못 미쳐 상처받는 아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단순히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이 아니라며, 이씨가 이번 공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드러냈다.

"작품 자체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예뻐지고 싶다, 멋있어지고 싶다'는 욕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내 몸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을까, 내 몸이 나만의 고유한 것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공연을 본 아이들이 친구, 부모님과 서로의 몸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지민
연출가

이지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아동청소년극을 공부했으며, 주로 어린이극 분야에서 배우와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빨간머리박쥐다다〉(작·연출·배우), 〈망토〉 〈8시에 만나〉 〈엄마가 모르는 친구〉 〈재주 많은 다섯 친구〉(이상 배우) 등이 있다. 특히 〈어딘가, 반짝〉은 어린이 특화 예술교육공간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예술로 상상극장'에 선정돼 공동으로 기획한 창작극이다.

'작가의 방'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 게시글은《한겨레》의 〈서울&〉에 소개되는 '사람in예술'에 동시에 게재됩니다.

노들섬에 뜬 달의 의미

"복잡한 서울 풍경에 존재하는 작은 비움이 아닐까요."

방치된 공간에 예술 작품을 설치해 명소로 바꾸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에 선정된 '네임리스건축'의 나은중 건축가는 자신의 작품 〈달빛노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100년 넘게 휴양지로 사랑받았지만 강변북로가 건설되면서 끊어진 뱃길이 반세기 만에 노들섬에 열렸다. 지난 3월 말부터 운항이 시작된 유람선이 회항하는 이곳엔 높이 12m의 거대한 보름달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4만 5천 개의 구멍에서 새어 나오는 수많은 빛줄기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바람과 함께 일렁이는 강물에 달무리로 나타난다. 수면에 떠오른 영롱한 달빛은 30분마다 비추는 조명 덕에 '삭-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로 생동감을 더한다.

나은중 건축가는 '이름이 없다'는 뜻인 '네임리스Nameless건축'의 대표로 활동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다. "드러나는 것도, 규정하는 것도 없이 의미를 담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직사각형 블록 형태로만 지어지던 학교를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삼각형으로 설계한 '동화고 삼각학교'의 사연과도 연관 있어 보인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좇았지만 다원을 강조한 작품 세계. 단순히 달을 재현하고 싶었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색다른 방법으로 달을 공개한 것이란다. 나은중 건축가는 〈달빛노들〉을 구의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원형 구조물을 서로 기대게 만들었으며, 올림픽대로와 한강대교, 노들섬 등을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달의 풍경을 담았다. 보는 사람에게 삶의 감흥과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는 이곳이 어떻게 비치길 바랄까. "한강 위에 뜬 달의 도시 풍경부터 달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험까지 자신들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저마다의 달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나은중
건축가

나은중은 홍익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했다. 2010년 뉴욕에서 네임리스건축을 개소한 뒤 서울로 사무실을 확장했다. AIA뉴욕건축가협회상, 미국건축가협회 뉴프랙티스뉴욕,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을 받았다. 미국 건축지《아키텍처럴 레코드》에서 세계 건축을 선도할 10대 건축가로 선정된 바 있다.

칠월 도성都城
짜글짜글한 햇볕과
매앰매앰 속 타는
매미 울음 가득할 때
낙산駱山에 오르면
어린 목동牧童들이
낙타駱駝에 올라
찬 바람, 선한 바람
한 떼 몰고
밤길을 가네

*낙산: 종로구·성북구에 걸쳐 있는 돌산.
한양의 내사산(內四山) 중 하나.
조선시대는 궁중 우유를 공급하는
목장이 있어 타락산(駝酪山)으로 불렸다.
광복 후 난개발로 산 전체가 주택지로 변했다가,
근래 도심 공원으로 환원됐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지금, 기후위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일시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15분~3시 35분
장소 유튜브 생중계 youtu.be/wdf5hWz-GKA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발제 및 토론 **성지수** 콜렉티브 뒹굴 대표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강진숙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센터장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10회를 맞은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1]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을 주제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학술대회에는 독일·케냐·호주·싱가포르 등 13개국의 문화예술교육 학계 인사가 참여해 기후위기·다양성·포용·평등·팬데믹 그리고 회복과 치유 등에 대한 발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 학술대회의 주제를 좀 더 친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사전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국내 예술가와 지역 단체의 활동 사례를 나누고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 1 기후위기가 시급하기에 우리는 더 작업한다

콜렉티브 뒹굴 성지수 대표

안녕하세요. '뒹굴'은 '신체성, 공간성, 의미와 본질을 만나기 위해 다원적 예술 언어를 기반으로 노는 존재들의 유기적 집합'입니다. 하루는 공연장, 다음 날은 놀이터, 오늘은 미술관, 내일은 학교에서 작업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2020년 6월에는 '기후 정의 창작집단 선언'[2]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유는 우리가 존재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를 화내기·멈추기·나누기·뒤집기 4개의 단어로 정리했는데요. 화내기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어진 〈오퍼튜니티Opportunity〉라는 작업이었습니다. 화성 탐사선을 소재로 처음 기후위기와 작업을 연결했습니다. 탐사선은 화성이 인간 생존에 적합한 환경인지 조사해서 지구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로봇입니다. 저희는 관객 참여형 연극, 전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났는데요. 〈오퍼튜니티〉에서 관객은 화성에서 발견된 탐사선이 되기를 요청받습니다. 관객에게 미션을 제시하는 앱을 개발해 관객이 전시장을 탐사하면서 시시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관객은 갑자기 탐사 프로젝트 예산이 감소해서 탐사선을 폐기한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관객에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탐사선 폐기에 동의

1 유네스코 유니트윈(UNITWIN)은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서울 어젠다의 예술교육 발전 목표에 대한 연구 과제를 함께 나누는 모임으로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의 관계자가 회원이 돼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확장하고 실행 방안을 공유하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콜렉티브 뒹굴 SNS 링크. han.gl/ApNZ2
3 '비치(beach)'와 빗질을 뜻하는 '코밍(combing)'이 합해진 말이다. 말 그대로 바다를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하느냐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폐기당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수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의 사람들이 참여해 분노를 느끼면, 우리 모두 기후위기라는 재앙에 연루됐음을 상기하는 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팬데믹은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굉장히 아프게 알려줬습니다.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논의와 설명, 기약도 없이 모든 공적 공간이 닫혔고, 뒹굴의 공간도 그랬습니다. 예술과 예술인을 죽게 두는 것이 기후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도 돈 안 되는 예술을 선택한 우리를 멸종시키지 말라고, 우리가 거대한 문명의 전환 시기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후위기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온라인으로 40여 명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어떻게 감각하고 다룰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움과 돌봄에 대해 나누고 머리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세미나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더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얼마 전 '탈서울'을 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뒹굴도 다시금 겸허히 앉아 있을 시간이 필요해, 연고 없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돌봄·농사·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성해서 돈으로 매길 수 없다며 천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팬데믹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공동체를 꾸려서 돌보고 농사짓고 창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예술가와 예술교육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같이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토론 현장

발제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모상미 대표

안녕하세요.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이하 모이다)은 부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비치코밍Beachcombing[3]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시와 거리예술, 광안리 아트마켓 3개의 세션을 운영하는데요. 모이다에게 있어 바다는 시민들과 예술 작가들의 작품이 만나고, 부산과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작가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 모이다에게 광안리 바다와 해변은 탐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바다 놀이터입니다. 해변을 거닐거나 함께 수영하고 놀기도 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퍼포먼스도 선보이는 멋진 놀이터입니다.

모이다가 바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9년 다나스·링링·미탁 등 세 번의 태풍으로 광안리 해변이 쓰레기 더미와 악취로 뒤덮였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만들어진 쓰레기를 머금은 바다가 아픔을 토해 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광안리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해변 정화에 나섰습니다. 이후 바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택한 것이 비치코밍입니다. 일시적 참여가 아니라 여행·놀이·예술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바다 환경 정화 캠페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역의 향토 문화와 이야기를 듣고 해변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종류를 알아보고 재활용 쓰레기를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탐색하고 가공해 작가들과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일상 속 바다 환경 정화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대상을 아이들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비치코밍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치코밍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통해 예술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부분과 재미·놀이·체험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 3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업사이클 예술교육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강진숙 센터장

안녕하세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는 업사이클 예술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서울 인근 도시로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개발돼서 생활수준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문화시설은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광명에 2015년 전국 최초로 업사이클을 주제로 한 생활밀착형 예술 창작 공간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했기 때문에 탄생부터 업사이클입니다. 업사이클은 버려진 폐자원에 예술적 혹은 디자인적 가치를 더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저희 센터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환경 이슈와 지속 가능한 삶에 재미있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 체험교육, 업사이클 공연, 특별 기획 프로그램 등 업사이클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데요. 우선 업사이클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합니다. 업사이클이라는 장르를 선도적으로 알리기 위해 분기마다 다른 주제로 기획하는 전시에 약 11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은 청바지·폐목재·자투리 가죽 등의 재료로 업사이클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강사를 원하는 곳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은 단순히 업사이클 만들기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삶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인데요. 센터는 미래 에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청소년 교육기관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와 함께하는 '에코건축학교', 지속 가능한 패션을 연구하는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 교실', 어린이들이 업사이클 악기를 직접 제작하고 공연을 하는 '리플레이 메이커Re.Play Maker' 등이 대표 청소년 특화 교육입니다.

센터가 업사이클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과 시민의 참여와 네트워크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예술 축제와 같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요. 기업 이케아IKEA의 기부로 만든 업사이클 가구를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는 지역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업사이클을 넘어 에코 디자인을 주제로 문화산업을 준비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는데요. 단기간에 끝나는 문화 소비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는 자본의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그동안 업사이클의 예술적·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우리 삶이 여러 문제로 위협받게 됐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발제 4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상상창고 숨 박진희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창의예술교육발전소, 그리고 예술교육그룹 상상창고 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위기는 복합적 관계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에 따른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2019년부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창의예술교육랩'에 참여하면서 제주의 문화 자산을 통해 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창의·예술·교육'을 핵심 키워드로 3개의 랩을 운영했는데요. '생태랩'은 자연과 교감에서부터 사람과 공감 능력까지 고취하는 과정으로, '인문랩'은 아이들이 자기 성찰에서 시작해 또래와 관계를 맺고 협업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과학랩'은 제주의 바람을 감각하고 데이터로 기록해 보면서 다양한 재료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창의예술교육랩'에서 2년간 연구·개발한 콘텐츠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확산하고자 키트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 본격적으로 예술교육을 시작한 '상상창고 숨'에서는 '삶 담다 예술, 예술 닮다 삶'이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집중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시간과 공간을 이어가며 관계의 감각을 회복하는 예술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프로그램 '감감술래 작산아이'에서 작산아이는 제주어로 철없는 큰 아이를 의미해요. 아이들이 삶의 감각을 찾아가는 예술놀이를 통해 성찰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생각을 여는 '질문 워크숍'은 사유하는 시간을 나누며 많은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치들을 스스로 감각해 가는 놀이 활동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감각하는 예술 활동은 나의 내부와 외부 세계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무엇인가를 소중히 하는 시선을 키워가고 다양한 관계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 공감의 힘은 좀 더 확장된 관계를 감각하고자 자연에서 경험하는 경외감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자연 탐사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치를 알아가고,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놀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힘을 키워간다고 믿어봅니다.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살림공작소'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참여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데요. 산책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다시 쓰고, 안 버리는 생활 습관을 키워갑니다. 생활 속에서 느린 속도이지만 우리가 합의한 가치를 위해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공감을 통해 변화의 과정에서 저희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같이 오름을 오르거나 곶자왈을 걷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수평적 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 삶의 결핍을 찾아가고, 회복을 위한 노력은 누군가(친구·숲속의 나무·길가의 고양이 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하며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이든(관계) 함부로 하지 않고, 무엇인가(가치)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예술을 통해 공동체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워가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듯 말입니다. 예술가들이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예술교육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지수
콜렉티브 뒹굴 대표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상을 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

박신의 앞서 네 분께서 각각의 입장에서 기후위기에 접근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활동이 어떻게 파급력과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토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인상 깊게 본 기사[4]가 있어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라는 학생이 2018년 8월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학교 결석'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작한 시위가 SNS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에게 확산됐습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캠페인이 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106개 국가의 청소년 기후활동가가 연대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 결석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들의 명료한 의식과 청명한 분노에 어른으로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주체로 하는 프로그램과 연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진숙 센터장님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통찰을 얻었을 것 같은데요.

강진숙 저는 감동받은 순간이 많았어요. 청소년들은 진짜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독할 정도로 몰입해요. 에코건축학교는 오전

4 《한겨레》 2021.5.16. '세계의 '툰베리'들이 묻는다, 불타는 집을 바라만 보고 있나요?'

박진희
상상창고 숨 대표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강진숙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센터장

10시부터 하루 종일 운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아침에 와서 점심만 먹고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요. 광명 같은 도심에 사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개인적 고민이 많은데요. 진로와 환경 교육과 연계해 관심사를 공유해 보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 에코건축학교와 디자인학교입니다. 또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재미예요. 초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게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리플레이 메이커'인데요. 이를 통해 감동을 많이 받고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걸 체험하면서 환경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박신의 앞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예술가로서 또 하나의 분야로 삼고, 청소년의 활동과 미래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참여한 청소년은 어땠나요.

모상미 처음에는 아이들과 가족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얼마 전 고등학생들과 광안리 해변에 나가 쓰레기를 주워서 분류해 보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는 비치코밍을 했는데요. 비치코밍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성지수 저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기특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니 어른들도 어른들의 몫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청소년마저 기특하다고 대상화하는데 하물며 말 못 하는 자연환경과는 어떻게 공존을 모색할까 하는 점에서 많이 반성했거든요. 저도 예술교육자로서 현장에 나가 보면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배제하던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먼저 청소년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 지금 세대가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세대이자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기후위기를 인지하는 과정과 실천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소통하고 연대해야 할 시간

박신의 다음으로는 이런 예술 활동이 어떻게 많이 보급되고 공유될 수 있을지, 예술교육의 파급과 연대를 위한 기술적 시도나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지수 예술인 기후위기 세미나에서 누군가가 기후위기를 감각한 시를 쓰고 다 함께 낭독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전국 각지, 해외에 있는 분과 줌Zoom으로 연결했는데요. 각자의 공간에서 들리는 소음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함께 시를 읽었더니 굉장히 멋진 작품이 되더라고요. 이

런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소통해 볼 수 있겠다고 체감했습니다.

모상미 저희는 부산의 5개 바다를 정화하면서 일반 시민 100여 명이 각각 채집한 것을 갖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서 10월에 전시할 예정이에요. 개인의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하는 모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숙 전시장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작품을 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도 집에 가서 해봐'라고 말할 때 속으로 미소 지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페트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무언가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쓰레기장으로 가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그만 행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희 살림공작소에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온 네 살 아이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휴대전화 게임만 했던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길가의 나뭇가지를 주워 와서 마당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쓰레기를 모아서 뭘 만들어보자고 선생님을 조르는 변화를 보였어요. 제주도 고등학교에서는 '트멍'이라는 생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곶자왈이나 바다에 나가 정화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많은 활동이 펼쳐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현장의 연결이 아쉬웠습니다. 학교와 예술가의 현장이 맞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신의 예술교육을 통한 기후위기 인식의 확산은 결국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요구받고 있는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평소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이 비대면화되면서 저희도 SNS를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어요. 100명의 신청자에게 씨앗(콩알) 3개와 흙, 종이화분, 질문 카드를 배달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식물이 커가는 과정을 기록해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주는 작업이었어요. 참여한 분 중 한 분은 첫 씨앗이 자라 맺은 열매로 다시 싹을 틔워 올해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싹이 트는 내내 질문 카드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술 프로젝트가 일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고요. 경직된 나를 흔들어놓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숙 저희 세대는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마다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해서 교육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재미있게 바뀔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문화예술의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재미있게 기후위기 대처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모상미 작년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확산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 신청한 분들에게 키트를 보냈는데요. 집에서 쓰는 옷걸이나 바닷가에서 주워 온 부유물을 활용할 수 있는 키트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실천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코로나19로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할 기회도 됐습니다.

성지수 기후위기를 탄소 문명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신자유주의가 끝나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는 혐오의 마음이 커진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런 순간에 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은 실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텃밭을 가꾸며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거나 창작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 저는 예술과 문화예술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 작업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인 상품화가 아니라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감각으로 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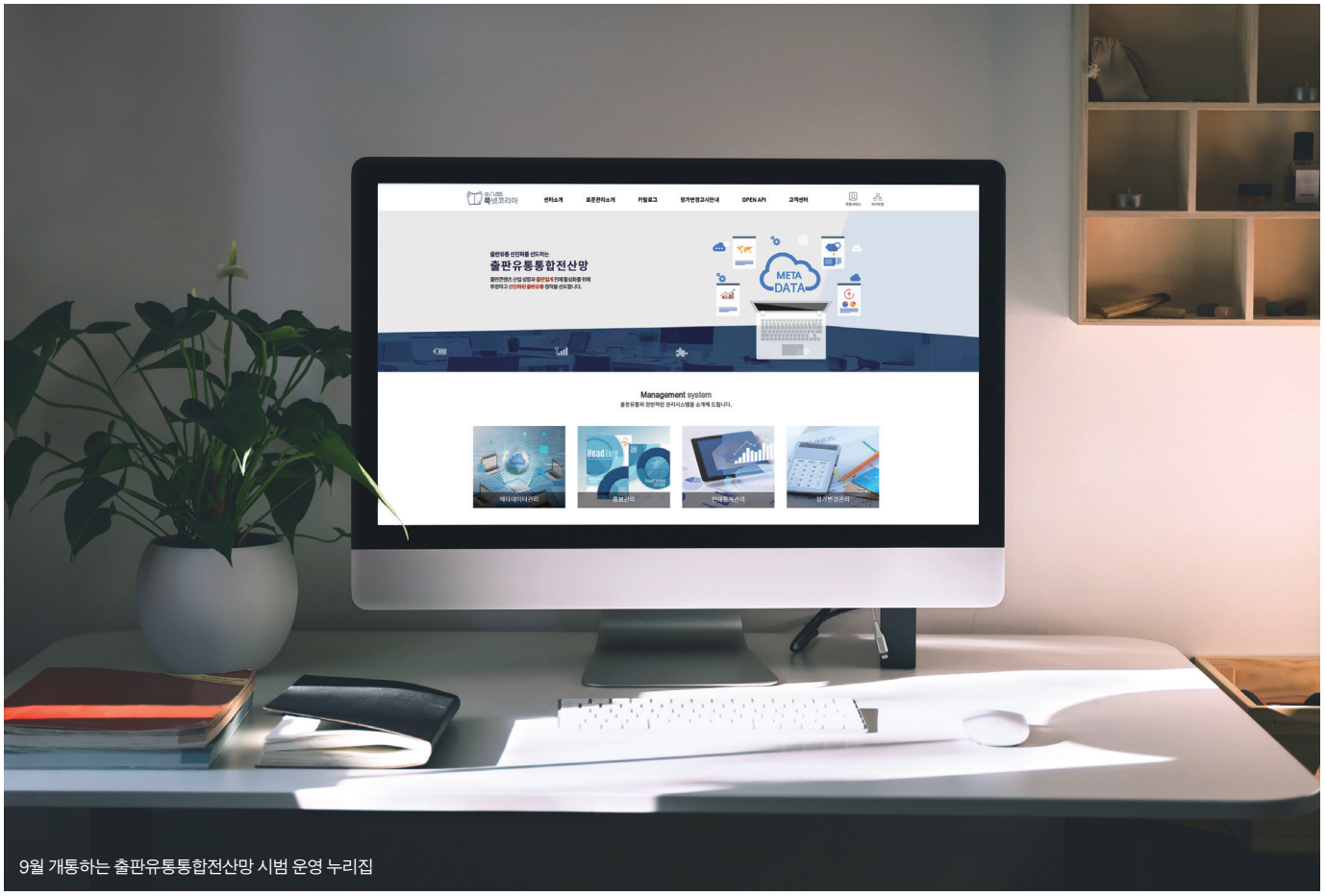
박신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술의 방식이 결국 예술의 본질 같아요. 예술은 창작자와 관람객이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질문과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던 시각이 확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교육의 이러한 대응이 성찰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예술의 면모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오늘 아낌없이 경험을 나눠주시고 토론에 함께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작가도 모르는 판매 부수, 전산망이 해법 될까

도서 판매·유통 시스템의 복잡성

소설가 장강명은 지난 5월 초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소설집을 낸 출판사가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는 전국 관객이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공개되는데 작가들은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출판사에 의존하는 것 외에 알 방법이 없다"면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출판사와는 앞으로 계약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9월 개통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범 운영 누리집

장강명 작가의 글은 도서 판매·유통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드러냈고,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출판전산망에 주목하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출판전산망이 9월에 개통되면 출판물의 유통·판매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일부 출판사와 작가 간 불공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는 문체부가 한 출판사의 일탈행위를 출판계 전체의 관행적 문제처럼 보이도록 했고, 이를 전산망 구축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과정이 가장 복잡한 상품, 책

출판전산망이 개통되면 도서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건 맞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전산망에는 온라인 서점·대형 서점·지역 서점 등이 작성한 도서 판매·재고 정보가 올라온다. 출판사들은 이 전산망에 책의 도서번호·제목·저자·정가 등 서지 정보와 함께 납품 상황을 입력한다. 이렇게 되면 전산망에서 책 공급·판매·재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산망이 개통되면 책 판매 부수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저자가 자기 책 판매 부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서 판매량 집계가 영화나 공연의 티켓 판매량 집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알 필요가 있다. 책은 제약과 함께 유통과정이 가장 복잡한 상품에 속한다.

책이 출판사에서 나와 서점에 깔리고 독자에게 팔리기까지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친다. 각 출판사와 서점은 직거래도 하고, 서적 도매상을 거쳐서도 거래한다. 출판사-서점, 출판사-도매상, 도매상-서점 간에는 각기 다른 거래 조건과 방식이 사용된다.

게다가 출판사는 책을 도매상이나 서점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보낸다. 도매상이나 서점은 이 책을 맡아 판매한 부수에 대해서 출판사에 대금을 지급한다. 출판사에서 나간 책 중 일부는 유통과정 중 어느 지점에 묶혀 있다. 출판사 출고량과 판매량을 동일하게 정산할 수 없는 이유다. 대형 온라인 서점들은 대개 출판사로부터 책을 선매입해 판매한다. 그러나 그 역시 온라인 서점이 매입한 부수이지 실제 독자가 구매한 부수는 아니다.

한 출판사 대표는 "실제로 팔린 부수는 나도 정확히 모른다"면서 "특히 팔리지 않은 채 유통과정에 묶혀 있는 잔고 물량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판사가 인세를 정산하는 방법

그러면 출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저자에게 인세를 줄까. 출판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인세를 정산하는데, 이 기간 중 도매상이나 서점으로 출고된 책에서 반품된 책을 뺀 부수를 판매량으로 잡아 인세를 지급한다. 2쇄, 3쇄 등 쇄를 추가할 때마다 새로 인쇄하는 부수를 판매 부수로 잡고 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재 저자가 자기 책의 판매 부수를 알고 싶다면 출판사에 물어야 한다. 출판사는 도매상이건 서점이건 책을 보낼 때 물류회사를 통하는데, 이 물류회사 데이터를 보며 출고 부수와 반품 부수를 확인한다. 또 대형 온라인 서점들은 각 책에 대해 판매지수를 제공한다. 이 판매지수가 정확한 판매 부수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판매 상황이 어느 수준인지 보여준다. 통상 출판사는 추가 인쇄를 할 때 몇 부를 새로 찍는지 저자에게 보고한다. 이를 통해서도 저자는 자기 책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추정할 수 있다.

전산망이 개통된다고 해도 저자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 부수를 알긴 어렵다. 전산망 구축을 추진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김진형 산업지원본부장은 지난 5월 열린 설명회에서 "판매 부수 공개 문제는 출판사와 저자 간 계약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 간 이슈"라며 "출판사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자가 요청하더라도 전산망에서 별도 공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풀어야 할 갈등은 산더미

도서 판매·유통 시스템 개선은 20년 넘게 출판계의 숙제였다. 정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해 몇 차례 전산망 구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도서 유통에는 수천 개의 출판사와 서점이 관계한다. 이들의 협력이 관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한데, 도서·판매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 보고할 유인이 있을까. 특히 서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매출 정보만 넘겨주는 게 아닌가 꺼릴 수 있다. 물론 주요 대형 서점과 출판사가 전산망에 참여한다면 유의미한 통계를 얻을 수도 있다.

현재 출판계와 정부는 전산망 운영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출판산업진흥원이 전산망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출판계는 전산망이 정부 기관에 장악되면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간 주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글 **김남중** 《국민일보》 기자

함께 예술로 목욕하던 행화탕, 이젠 안녕

복합문화예술공간의 장례식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이 문을 닫았다. 그곳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상혁이
이 지면을 빌려 행화탕과 함께한 때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봤다.
2016년 1월, 그때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운명'이라 말할 수 있는, 행화탕과의 만남이 있었다.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의 시작

행화탕은 1958년 마포구 아현동에 지어진 대중목욕탕이다. 남녀노소 목욕을 하기 위해 찾는 세신 공간이자 주민들이 삶과 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랑방이기도 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무렵 여러 기능을 겸한 찜질방·고급 스파와 같은 경쟁 시설이 생겨나면서 쇠퇴했고, 손님이 줄었다. 결국 2008년 폐업했다. 탕과 벽을 허물고 창고나 고물상으로 1~2년 쓰였으나, 오랜 기간 유휴 공간으로 방치됐다.

그리고 2016년 1월의 만남을 통해 2016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은 '예술로 목욕합니다'라는 모토로 다양한 '예술 목욕' 활동을 했다. 본래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아 꼭 목욕탕일 필요는 없었다. 반드시 행화탕일 이유도 없었다. 운명처럼 다가온 행화탕과의 만남과 그 인연의 실타래가 풀려나가며 동행이 시작됐고, 동료인 주왕택 아이플래닛 대표가 행화탕의 공동운영자로서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과거 몸의 때를 밀던 목욕탕은 예술이란 매개체를 통해 마음의 때를 미는 '예술 목욕'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에도 예술로 매개된 수많은 개인이 '목욕'을 했고, 기존의 탈의는 '내 것이 아닌 것'들이나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두는 행위로 전환됐다. 2016년 예술 작업 공간으로 시작했고, 2017년 예술 정신과 활동을 기본 정체성으로 두고 인간의 생활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문화를 복합적으로 구축해 간다는 지향성을 담아낸 '복합문화예술공간'임을 선언해 본격적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으로 탈바꿈했다.

'예술로 목욕합니다'를 실천한 주요 활동

5년 동안 행화탕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100여 차례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 나이로 행화탕이 61세 환갑이 됐을 무렵 기획한 〈행화환갑〉과 〈행복 목욕키트〉 준비 과정과 모바일 AR 장치를 활용해 장소를 특정하고 관객이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연 〈행화탕 장례날〉 제작 과정이다. 물론 행화탕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이 유의미했다. 그럼에도 손꼽힌 '환갑'과 '장례' 프로젝트 간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행화탕을 생명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며 진행한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행화환갑〉은 행화탕이 자신이 '태어난' 1958년에서 한 갑자 돌아 마주한 2018년, 문득 '끝이 아닌 시작'이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예술가(서울괴담·송광찬·투스토리)를 초청해 공간의 특성과 이야기를 각각 연극과 사진 그리고 음악으로 창작한 예술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기획과 연출의 경계에서 서성이던 내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준 〈행화탕 장례날〉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함께한 예술가들의 상호 신뢰와 온 마음의 협력으로 만원 세례를 이룬 공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는 언젠가 맞이할 행화탕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는 초석이 됐다.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 밸런스포인트와 협업해 '행화커피'라는 브랜드로 2017년 6월 25일 행화탕의 탈의실 공간을 카페로 운영하기도 했다. 목욕탕만의 독특한 메뉴를 개발하고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주력 메뉴로는 '살구꽃'을 뜻하는 '행화杏花'의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행화장례 삼일장〉 1일차. 사진 송광찬

의미에 착안해 직접 담근 수제 행화청(살구청)을 활용한 '행화에이드'와 '행화차', 목욕을 연상케 하는 '반신욕라때'(떼를 '때'로 바꿈), 목욕탕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바나나탕우유'가 있었다. 행화탕의 시그니처 음료를 흥미로운 멋으로, 독특한 맛으로 즐겨 마시던 손님들이 남긴 많은 사랑의 흔적은 여러 매체와 개인 SNS에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글로 공유됐다.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이제야 밝힌다.

행화장례 삼일장: '행화탕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기억합니다'

행화탕은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속한 재개발 예정지였다. 2021년 2월, 행화탕 인근 어느 집 담벼락에 '이주 개시 안내' 글을 발견했다. '이주 기간: 2021년 1월 25일~5월 24일 문구를 보고 순간 불안이 엄습했다. 언젠가 때가 오리라 생각했지만, 마음은 혼란하고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문득 '죽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2021년 5월이 오기 전, 마음의 정리를 했고, 자연스레 행화탕의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의 발길로 따뜻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행화장례 삼일장〉을 떠올렸다. 그렇게 한국 나이로 64세가 된 2021년, 행화탕은 역사와 개개인의 기억 속으로 영면했다. 2021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행화장례 삼일장〉을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시간씩 3일간 치렀다. 이를 위해 염하듯 행화탕 구석구석 정갈히 정돈해 곳곳을 전부 열었다.

이 모든 것은 상주 혼자 할 수 없는 일임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행화탕과 인연이 귀하게 맺어진 몇몇 지인에게 공동 상주를 사전에 부탁하며 각각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며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조의를 표한 1,000명 내외의 조문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죽음 이후 치러지는 '장례'라는 의례를 죽음 직전으로 시점을 옮겼다. 과거 몸의 때를 미는 목욕탕이 그러했듯, 마음의 때를 밀던 예술 목욕탕이 그러했듯, 행화탕의 마지막 순간을 남녀노소 함께한 까닭에 행화탕은 저마다의 기억에 남아 살아 숨 쉴 것이다.

글 **서상혁**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축제행성 대표 | 사진 제공 **축제행성**

고양이의 퀘렌시아, 사람의 퀘렌시아

이화동 '책읽는 고양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퀘렌시아querencia라고 한다. 바람은 바람대로, 노을은 노을대로, 오랜 수령의 뽕나무는 뽕나무대로, 조형물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대로, 풍경부터 공간, 오가는 모두가 저마다 아름다울 수 있는 곳. 낙산공원길의 퀘렌시아 '책읽는 고양이'를 소개한다.

소소하면서 정겨운 공간

지하철 동대문역 1번 출구로 나와 한양도성을 바라보며 성곽길을 올라간다. 새소리도 들리고, 벤치엔 동네 어르신이 마스크를 낀 채로 앉아 있다. 금계국이 한창 피어나고 축성 시기별로 성기기도, 촘촘하게도 쌓인 한양도성 아래 두 번째 암문으로 들어가면 축대 위에 고양이가 지키고 있는 이층집이 보인다. 지난 5월 7일 문을 연 '책읽는 고양이' 다.

이곳 주인장은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그리고《씨네21》편집장을 지내고 소설《세 여자》를 쓴 조선희 작가다. 책 읽고 이야기하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5월 즈음에 그가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옮겨보면, 소소한 프로그램과 모임이 있는 문화 공간, 사람들 만나는 데 필수인 술과 음식,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람 이상으로 막대한 도움을 준 고양이들에 대한 오마주로 공간을 헤아려서 갖췄다고 한다.

이곳엔 주인장과 함께한 추억 속 네 마리의 고양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재롱은 가장 의젓한 모습으로 동그랗게 앉아 서울 하늘 아래를 굽어보고 있고, 2층 유리창 벽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다리를 뻗고 있는 도롱이와 빨간 계단에서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는 티거, 그리고 2층 정면 창문틀에 두 발을 올리고 서 있는 샴고양이 초롱이 있다.

출입구 옆 1층 책꽂이엔 고양이를 주제로 한 책을 비롯해 공간을 돌보는 요일별 아르바이트생 7인의 여성 중 글을 쓴 저자의 책이 꽂혀 있고

1 '책읽는 고양이'에서 바라본 전경
2 고양이가 그려진 가방이 벽에 걸려 있다.
3 '책읽는 고양이' 내부에 다양한 고양이 오브제가 있다.

주인장인 조선희 소설가가 큐레이션한 책을 담아 그의 취향을 살짝 경험하는 재미가 있다. 1층 벽면을 채우고 있는 고양이 소품장엔 200여 점이 전시됐다. 선물받게 된 인연부터 일본에서 말레이시아·중국·홍콩·프랑스·영국·폴란드·스웨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구하며 얻은 이야기 하나하나 정겹다. 또 김미경 옥상화가가 그린 고양이 드로잉을 비롯해 박선미·정은혜 작가의 그림과 고양이 사진, 주인장이 직접 수를 놓은 가방 공예 작품까지 고양이를 테마로 한 작품을 1층과 2층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층 천장과 벽을 장식한 김래환 조각가의 고양이 모양 나무 접시 세트는 이곳에서 만드는 음식과 차 그리고 술에 '책읽는 고양이'라는 인증 마크를 보여주는 듯하다.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지만 '책읽는 고양이'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주인장인 조선희 소설가의 사회비평서《상식의 재구성》출간 후에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북토크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층 테라스에서는 대학로 공연의 뒤풀이가 펼쳐지고, 2층 넓은 테이블에서 고양이 테마의 영화 감상을 비롯해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는 현장을 상상해 본다.

자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7인 7색의 여성이 요일별 아르바이트생으로 기꺼이 나서고, 모든 요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대타 시스템에 면접을 자청하는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줄을 잇는다니 앞으로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 일들이 팡팡 터질 것인가! 물론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지금 테라스로 나가서 서울의 노을을 바라본다든지, 공간 어디에서도 누릴 수 있는 서울 풍경과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개에게는 주인이 있고 고양이에겐 집사가 있다

개는 충성심을 자랑하지만 고양이에겐 자존감이 있다. 고속 압축성장에 지친 현대인은 이제 국가나 조직이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살기보다 그저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뭔가 억눌리고 내심 찜찜하던 구석을 내놓고 남이야 어떻게 보든 말든 신경 끊고 그저 생긴 대로 살고 싶을 뿐이다. 2020년 6월 말, 정년 퇴임한 필자의 상태도 딱 그랬다. 가족을 위해서,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서, 공공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팬데믹 이후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나'의 성장이니 '나'를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나로서' 살고 싶었다.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일 중 하나가 '책읽는 고양이'의 아르바이트다. 원두 가루를 담아 커피를 내리고,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로플을 만들고 '어른의 맛'을 느끼게 하는 칵테일 하이볼과 모히토를 제조하며 단순하게 지낸다.

바람은 바람대로, 노을은 노을대로, 카페 앞 오랜 수령의 뽕나무는 뽕나무대로, 조형물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대로, 풍경부터 공간, 오가는 모두가 저마다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 곳. 낙산공원길 '책읽는 고양이'가 그곳이다.

책읽는 고양이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서1길 18-2
운영 평일 오후 1시~9시, 주말·공휴일 오후 12시~9시
문의 02-766-0425

글 **프리랜서 알바오** | 사진 제공 **김영호**

상실한 자의 상처로부터

뮤지컬 〈드라큘라〉와 연극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누군가는 400년 전 사랑을 잃은 아픔에 수백 년 동안 세상을 떠돌며 점차 인간 세계와 엇나간다. 다른 누군가는 급격한 사회 변혁 속에서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한다. 〈드라큘라〉와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각각 원작 소설과 실제 미국의 사회상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작품의 창작자들은 무언가 상실한 자의 상처로부터 영감을 받아 극을 완성했다. 아픔과 결핍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지 느껴보고 싶다면, 두 작품에 주목해도 좋겠다.

1

사랑의 상실, 위험한 사랑의 늪 속으로 초대

〈드라큘라〉 | 5. 20~8. 1 |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뮤지컬 〈드라큘라〉는 1897년 출간된 동명의 원작 소설을 각색해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뮤지컬만 해도 여러 버전이 있는 데다 연극·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오랜 시간 창작될 만큼 매력적 소재다. 작품은 한마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드라큘라가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뒤 400년이 넘도록 그 여자를 그리워하는 순애보 이야기다.

2001년 캘리포니아에서 첫선을 보인 이번 작품은 20년 동안 끊임없이 수정·개작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왔다. 국내에서는 2014년 첫 공연 후 올해로 네 번째 시즌이다.

극의 배경은 19세기 유럽 빅토리아 시대 말엽. 드라큘라 백작은 새로운 피를 찾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하는데 우연히 '미나'라는 여인을 만난다. 드라큘라는 미나를 보며 400년 전 그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옛 애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극 중 드라큘라는 사랑을 갈구하는 흡혈귀인 동시에 불쌍하면서도 인간적 성격을 표현해야 하는 입체적 캐릭터다. 복합적인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와 융화하기 어려운 숙명이자 결핍이 녹아 있다. 여느 뮤지컬보다 주인공의 연기력과 넘버 소화 능력 등이 극에 큰 영향을 준다. 이번 시즌 '드라큘라' 역의 김준수는 2014년 초연부터 모든 시즌에 참여했다. 캐릭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물론 처절하게 절규하는 넘버는 관객의 환호를 이끌어낸다. 전동석은 섹시하고 매혹적 드라큘라를, 이번에 처음 합류한 신성록은 신들린 감정이 담긴 드라큘라를 선보이며 모든 배우가 무게감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극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서사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드라큘라의 세심한 연기가 필수다.

작품의 판타지적 속성을 극대화하는 건 무대세트와 조명이다. 그야말로 보는 맛을 느끼게 하는 화려한 세트다. 드라큘라 백작의 성·감옥·기차역·병원·납골당 등이 시종일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조명과 어우러져 몰입감을 최대로 이끌어낸다. 회전 턴테이블의 활용도 돋보인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rn의 음악도 빼놓을 수 없다. 〈지킬앤하이드〉 〈데스노트〉 〈몬테크리스토〉 〈엑스칼리버〉 등 그가 빚은 서정적 선율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이번 작품에서도 넘버에 푹 빠져들 만하다. 웅장한 맛도 있다. 무더운 여름, 드라큘라가 펼치는 사랑의 늪과 한恨 속으로 빠져보시길.

'노동의 상실' 축제에서 파국까지, 그럼에도 다시 연대를 외치다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6. 18~7. 18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시사 주간지 《TIME》이 2019년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힌 미국 출신 극작가 린 노티지Lynn Nottage.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소외된 이에 주목해 왔다. 《Ruined》에서는 콩고 여성들의 무자비한 학대 역사를 기록했고, 2017년엔 《Sweat》에서 직접 취재한 미국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냈다. 그의 두 작품 모두 퓰리처상을 탔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공연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관객과 만난 국립극단의 신작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은 그가 두 번째로 퓰리처상을 탄 희곡 《Sweat》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극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소도시 '레딩Reading'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미국 러스트벨트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곳은 한마디로 공장 노동자의 도시다. 주민들은 몇 대에 걸쳐 가족들이 매일 10시간씩 공장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레딩을 비롯한 공장지대의 쇠락과 함께 이들의 삶에는 균열이 발생한다. 거대 금융자본·신산업에 밀려나던 레딩의 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건 노동의 상실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권을 쟁취하려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들의 힘은 이전 세대가 일하던 때와 같지 않다. 노조가 말을 안 들으면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통째로 옮기면 그만이다.

극은 마을 공동체가 매일같이 축제를 벌이는, 사교의 장이던 바Bar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극의 주된 배경이 공장이 아니라 술집인 점은 상징적이다.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잠시나마 노동자들에게 안식을 주던 곳은 역설적으로 가장 황폐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가족인 줄로만 알았던 이웃들은 노동자·관리자 등으로 계급이 나뉘며 갈등이 시작된다. 그간 미국 사회 내 묵은 인종 갈등도 함께 수면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노동의 상실은 폭력을 낳으며 폭발한다.

바텐더로서 늘 한곳에 머물며 포용력을 보여주는 인물 '스탠'은 박상원 배우가 맡았으며, 강명주·김세환·김수현·문예주·박용우·송석근·송인성·유병훈 등이 개성적 인물 군상을 대표한다. 한국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타지의 이야기지만, 배우들의 과하지 않은 담담한 연기는 극이 우리네 현실과 어딘가 닮아 있음을 실감 나게 그려낸다.

1 뮤지컬 〈드라큘라〉의 김준수
2 연극 〈SWEAT 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 무대 배경 술집과 배우들

장면 전환 때마다 무대를 가득 메우며 흘러가는 방송 뉴스 화면과 공간적 배경인 바의 무대세트가 인상적이다. 도현진 무대디자이너는 "극중 바와 실시간 뉴스 등을 통해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1년 작품을 보는 한국 관객에게 중첩적 의미를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원작 희곡에서 작가는 세상의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뉴스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한다. 안경모 연출가는 "작품을 접하는 건 결국 한국이다.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은 뉴스를 선택하며 관객의 이해도와 공감을 높이려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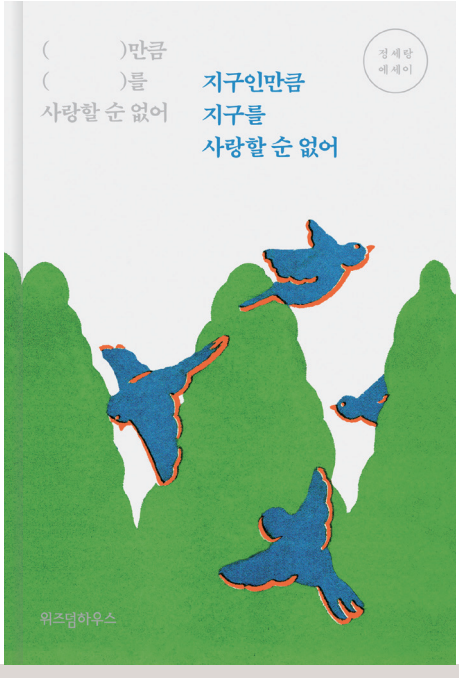
노동의 상실로 표류하던 인간들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 작품 마지막 장면에선 폭력적으로 맞서던 젊은이 3명이 바에 다시 모인다. 이전의 폭력과 광기는 사라졌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뉴스 화면에는 미군의 이라크 철수 합의, 미국 주식시장 폭락 등의 뉴스가 흐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작가는 한 줄기 희망이자 작품 제목인 '땀'을 슬며시 내비친다.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 작품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극에 참여한 배우들은 한목소리로 "결국 우리는 연대를 외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 **김기윤** 《동아일보》 기자 | 사진 제공 **오디컴퍼니(주), 국립극단**

더는 여행하지 않을지라도

책《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갑갑하거나 갈증이 일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홀하게 여기던 국내 도시에 머무르며 그 속살을 즐길 기회를 가졌다. 말 통하고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시간도 돈도 덜 들고, 공항의 번잡함과 시차 극복 같은 피곤한 일을 겪을 일도 없었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두 책을 소개한다.



여행을 즐기지 않는 여행자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 정세랑 지음 | 위즈덤하우스

필자는 가끔씩 이국적 향취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일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늘길 막힌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바람 쐬러 떠난 지방 도시 여행도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건 서울에서의 일상이다. 전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먹을거리와 문화를 누리면서 '아, 서울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날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아졌다. 어쩌면 그건 본디 여행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이라 그런지도 모른다.

소설가 정세랑의 여행 에세이《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를 읽으며 괜한 친근감을 느낀 것은 여행을 즐기지 않는다는 작가의 고백 때문이었다. 이 책은 작가가 무려 9년간 집필한 여행 에세이인 데다 뉴욕·런던·아헨·타이베이·오사카 등을 여행한 경험을 담고 있지만 작가는 정작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파리에 간 반 고흐나 이탈리아에 간 괴테처럼, 무릇 예술 하는 사람은 이국을 여행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는지라 처음에는 그 사실이 살짝 낯설었다. 알고 보니 이는 작가가 어릴 때 소아뇌전증을 앓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슬픈 사연을 담고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필자는 이 책이 더 좋아졌다. 발작 때문은 아니지만 필자 역시 낯선 곳을 무척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해외여행을 무서워하므로.

그렇지만 어떤 갈망은 두려움도 이긴다. 작가는 전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니던 출판사에 사표를 낸 후 친구를 만나러 뉴욕에, 남자친구

를 따라 독일 아헨에, 이벤트에 당첨돼 런던에 간다. 뉴욕 이스트빌리지와 런던 국립초상화 박물관 등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담뿍 담긴 수다스럽고 발랄한 여행기엔 "~에 다시 간다면"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지만 정작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앞으로의 나는 별로 여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말한다. 이미 여행에서 찾아낸 보물을 충분히 품고 있으므로, 여행할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싶다면서 "그러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여행 책이 달고 맛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필터 삼아 걸러낸 지구의 면면을 살짝 떨어져 탐닉하고 싶다"고 말한다.

일상을 살면서 여행을 하다니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 무루 지음 | 어크로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안내자'인 무루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는 그림책에 대한 에세이다. 따뜻하고 반듯하며 삶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건 '여행을 가려고 집을 부수다니'라는 꼭지다. 네덜란드 작가 마티아스 더 레이우의 《멋진, 기막히게 멋진 여행》을 소개하는 이 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꽤 오래 여행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고양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체력이 약하고 가진 돈은 적고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행이 꼭 인생의 필수 항목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그저 여행이 더는 하고 싶지 않아져서" 여행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무루 작가는, 정세랑 작가와 마찬가지로 여행 책이나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들이 사다준 기념품 같은 '남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즐긴다. 그러면서 여행 체질인 친구 ○○를 생각한다. 어디에도 1년 이상 뿌리내리는 법이 없이 보란 듯 자유롭게 흘러 다니며 살던 친구가 떠오른다.

《멋진, 기막히게 멋진 여행》 속 남자는 '떠나볼까?' 하고 살던 나무집을 부수고 만든 다리를 내달려 호기롭게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마친 남자는 다리를 부숴 다시 집을 짓는다. 집이 낡았지만 남자의 얼굴엔 생기가 돈다. 머문 곳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미련 없이 먼 곳으로 떠나던 결혼 전의 ○○를 닮았다. 무루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혼자서는 어디로든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된 ○○가 나무다리로 집을 짓고 사는 남자와 닮았다 생각한다.

더는, 혹은 당분간 여행하지 않더라도 여행에서 얻은 생기로 일상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도,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도 결국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그들은 낯선 나라에 매혹돼 비행기 티켓을 끊고 여행 가방을 싸는 대신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이 나라를, 서울을 충만하게 즐길 것이다. 비행기 옆자리가 아닌 서울의 지하철이나 버스 옆자리에서, 이 일상 여행가들과 마주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글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 | 사진 제공 **위즈덤하우스, 어크로스**

내 몸을 부끄러워한 죄

사라진 것을 기념하는 철길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된 이 연재를 마치기 전에 짚고 싶은 장소와 사람이 있다. 마포와 한의사 명호다. 일단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초고를 만들어놓고 명호가 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안녕, 나의 자궁》. 책을 반쯤 읽었을 때 초고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통해서 명호가 분명하게 말한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호를 알고 지낸 뒤, 그가 보여준 태도, 특히 불행한 여성에 대한 연민은 거의 투사적이었다. 불운이 겹쳐, 죽을 듯이 혹은 비틀비틀 살아내던 나의 어느 한 시절에 명호는 비빌 언덕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명호는 펄쩍 뛸 게 분명하다. 그건 언니의 착각이라고!

서울 사는 동안 살아본 곳은 서너 곳. 기억에 남도록 가본 곳은 열 곳도 안 될 것 같다. 결국 활기차게 살아보지 못한 거다.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마포는 오래도록 더듬고 추억할 곳이다. 우선 마포 구역 몇 곳에 한국작가회의 사무실이 있었다.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작가회의 회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며칠 있어본 것도 그 덕이었다.

나의 불안과 우울을 나보다 먼저 알아본 한의사 명호. 병원 건너편 어느 오피스텔에서 동업자 몇을 불러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준 것도 아름다운 추억. 작가회의 이사장을 할 때, 사무국 직원 모두를 초청해서 푸짐한 식사를 대접해 낯을 세워줬다.

이 여자. 마포 토박이다. 지금 마포역에서 내려 호텔 쪽으로 나와 걸어가다 보면 명호가 일하는 빌딩이

나온다. 병원 뒤로는 정겨운 음식점과 노래방과 은근슬쩍 숙박업소도 끼어 있다. 그곳이 도화동. 복사꽃 마을이다. 명호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의 엄마와 삼촌들, 형제자매가 모두 마포초등학교 동창생. 그가 어릴 땐 산 중턱의 학교를 올라가다 보면 형무소 죄수들이 무와 배추 농사를 짓던 밭이 내려다보이던 곳이지만 지금은 온통 아파트 세상.

일제강점기부터 그곳 마포시장에서 외할아버지 형제가 고무신 가게와 건어물 장사를 했다. 형님은 건어물 장사로 큰돈을 벌었지만 외할아버지는 시장에 불이 나서 가게를 다 태운 뒤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명호가 어릴 때 교복 입은 채 아버지 손에 이끌려 다니던 마포종점의 해장국집은 아직도 그대로 영업 중. 용산성당 뒤쪽엔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벌벌 떨면서 담력내기 놀이를 했다.

지금은 대기업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공덕동 사거리엔 개봉관을 거쳐 밀려 내려온 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이 있었다. 그곳에서 명호는 중학생 때부터 학생 입장 절대 불가 영화를 섭렵했다고 으스댄다. 동업자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몰려가서 밤새 노래를 부르던 굴다리 밑의 '방석집'.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 중엔 명호의 환자도 있다. 돼지껍데기집에 대한 그리움엔 왠지 선량함과 순정도 담긴 것 같다.

해마다 홍수가 지면 아현동과 만리동 고개에서 물이 쏟아져 한옥 댓돌을 넘은 물이 방의 이불과 머리를 적셔 놀라 깨기도 했다는 명호. 한의사가 돼 여성의 아픈 몸을 돌보며 깨달은 것들이 있다. 그 깨달음을 모아 만든 책이 10여 년 전에 쓴《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자궁》. 이미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지에 판권이 팔렸고, 국내에선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정작 본인은 맘에 안 들었단다. 그래서 다시 썼다. 맘에 안 든 원인 중 하나가 '분노의 글쓰기'였다고. 마치 나를 두고 한 말 같아서 뜨끔했다.

책을 거의 품에 안는 기분으로 앉아서도 누워서도 읽었다.

그리고 물었다. 나의 자궁은 안녕, 한 적이 있던가?

결국 나는 똑바로 누워 내 자궁의 안녕을 되짚게 됐다. 자궁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몸을 가진 나, 여성의 몸으로 살아낸 내 삶에 대해 되짚는 동안 통렬한 진통이 왔다. 울음이 몸 안에서 울컥거리는 게 느껴졌다. 이웃이 못 듣도록 이불 뒤집어쓰고 울어야 했다. 남자와 다른 몸을 가졌다는 걸 안 뒤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이기만 한 통곡.

기다렸다. 고요하게. 숨을 깊이 쉬면서. 하지만 울음은 기포처럼 꺼졌다. 구원은 쉬 오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내 몸엔 남루한 세월이 켜켜이 굳었고 벗겨내는 일이 가능하기나 한가? 이미 지난 일. 누구의 잘못인가? 오래지 않아 답을 얻었다. 내 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것.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극단으로 벌어지고 뒤틀어진 채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죄와 함께.

명호의《안녕, 나의 자궁》이 더 늦지 않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몸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한다. 왜 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지, 이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는 사람마다 공감의 밀도가 다르겠지만 여성들과 공유하고 싶다.

글·사진 **이경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아이돌(?) 매드몬스터와 아이돌 에스파

이 글을 쓰기 위해 포몬(포켓몬스터, 아이돌(?) 매드몬스터의 팬클럽)이자 매드몬스터 멤버 제이호의 열성 팬이기도 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드몬스터 소개 글에 있는 데뷔 연도랑 이전에 냈다는 곡들은 가상이지? 진짜로는 〈내 루돌프〉 한 곡밖에 없는 거지?"

우리 매드몬스터 오빠 가짜라는 루머 퍼뜨리지 말아줄래요?

보통 이런 설정값을 가진 '부캐'(한 사람이 지어내 연기하는 인물, 모두가 가짜임을 알지만 모른 척 함께 논다)의 활동을 검색하면 적어도 나무위키나 포털 내 정보 검색 채널에서는 진실을 알려주건만, 매드몬스터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조차 그들의 가상세계관이 나열돼 있다. 다행히 친구는 "매드몬스터는 세계적 아이돌이고, 매드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야. 전 세계 45개국에 팬클럽 인구만 60억"이라 주장하지 않고 친절히 매드몬스터에 대해 알려줬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유튜브 콘텐츠 제작사)의 빵송국 채널에서 기획한 그룹이며 데뷔 연도와 이전 타이틀곡, 멤버 간 불화설이나 1집 활동 에피소드 역시 만든 이야기라고. 대중문화 칼럼을 오래 써오고 있지만, 부캐의 세계관까지 공부하고 팩트 체크해야 하는 세상이라니. 내가 늙은 것인가,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인가.

유재석의 부캐 유산슬·유야호나 개그맨 김신영의 부캐 다비이모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지하게 신곡을 발표하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며 드라마 작가가 시놉시스를 짜듯 부캐의 지난 활동 에피소드와 서사까지 촘촘하게 설정해 놨으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헛갈린다. 유튜브 빵송국 채널에 들어가면 매드몬스터라는 아이돌 그룹의 각종 영상이 올라와 있다. 신곡 콘셉트 회의, 연습 영상, 쇼케이스와 일상 브이로그까지 영상 떡밥이 무궁무진한데 어느 댓글처럼 "아이돌 하는 건 다 하고 있"으니 진짜 아이돌이라고 믿을 수밖에. 하지만 이 그룹의 멤버 탄과 제이호의 본체는 개그맨 곽범과 이창호다. 이들은 남자 아이돌이 팬 서비스 영상을 찍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 몸짓이나 말투를 따라 할 뿐 아니라 외모까지도 저 아이돌처럼 변신했다. 메이크업이나 가발 따위로 변신하는 번거로운 짓은 하지 않는다. 얼굴 변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조그마한 얼굴에 커다란 눈, 오똑한 콧대를 재현한 것이다. 더구나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다지 정교하지 않아서, 얼굴 쪽으로 손이 갈 때마다 마법이 깨지듯 원래 얼굴로 돌아오고 얼굴 바깥 주변부가 일그러지기도 한다. 매드몬스터는 이러한 부작용까지 코미디로 활용한다. 얼굴 보정과 "매드몬스터에게 악귀가 씌었다"는 논란이 월드클래스 아이돌 유명세에 따른 악의적 소문이라며 소속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해명을 한다. 이들의 설정은 코미디일지 몰라도 노래나 안무, 활동하는 모습만큼은 진짜 아이돌과 같고 노래 역시 중독성이 있어서 〈내 루돌프〉 뮤직비디오는 벌써 유튜브 조회수 666만을 돌파했다.

가상세계관에 진심인 사람들

조회수와 미래적 설정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아이돌이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Aespa다. 그룹명 에스파는 'Avatar와 Experience'를 표현한 'ae'와 양면이라는 뜻의 영단어 'aspect'를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 바탕이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야겠다. 에스파의 멤버는 몇 명일까? 에스파는 4인조일까 8인조일까. 멤버는 카리나·윈터·지젤·닝닝 4명이지만 이들의 뮤직비디오와 온라인 인터뷰에는 나머지 4명의 '아이 에스파'가 등장한다. 에스파 멤버 4명의 개성을 본뜬 아바타 '아이Æ'와 함께 가상 세계에서 활동한다는 설정이다. 에스파의 신곡 〈넥스트 레벨〉의 뮤직비디오 콘셉트는 퓨처리즘Futurism이고, 영화 〈아바타〉나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본 듯한 알록달록한 가상 세계가 등장한다. 신곡에는 "광야로 간다"는 가사가 있는데, 이 역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에스파와 아이(에스파 아바타)의 연결을 방해하는 '블랙맘바'를 찾기 위해 비정형의 공간인 광야로 떠나는 멤버들의 여정이 가사이자 뮤직비디오 내용이다. 아바타와 함께 가상 세계에서 모험을 한다는 세계관은 독특하지만 사실 SM엔터테인먼트는 20년 전부터 이러한 세계관 설정을 꾸준히 해왔다. 보아의 데뷔곡은 〈ID Peace B〉이고, 동방신기와 엑소 역시 동방불패와 초능력 설정을 가지고 데뷔했다. 앞서 소개한 매드몬스터가 '60억 팬클럽'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에스파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정말로 1억 뷰다. 이는 K팝이 이제 한국 내수 시장보다는 글로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가능한 조회수다. SM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는 2,790만 명이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공식 채널 구독자는 5,750만 명이다. 남한 인구수가 5,182만이니까 전 국민이 유튜브를 구독해도 나오기 어려운 숫자다. 이제 K팝, 그중에서도 아이돌 산업은 전 세계 팬들의 눈과 귀가 좋고 있는 궁극의 트렌드이자 문화 흐름이다.

매드몬스터와 에스파는 지금 한국의 10대가 가장 동시대적이라고 인정하며 호감을 표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과 아바타라는 기술로 '놀이'를 벌이고, 자신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세계관을 세련되게 밀어부친다. 자신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결과물, 음악과 뮤직비디오 등에서 첨단의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준다. 두 그룹은 모두 팬과 소통하는 영상에서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를 취한다. 그야말로 'Z세대'적이다.

글 **김송희** 《빅이슈코리아》 편집장, 칼럼니스트
사진 **매드몬스터 인스타그램 갈무리**

구스타프 말러. 빈 궁정 오페라하우스 복도에서. 사진 Moritz Nähr. 1907

세계가 공감한 슬픈 인생 교향곡

서거 110주년 맞은 구스타프 말러

올해는 구스타프 말러가 세상을 떠난 지 110년이 되는 해다. 1911년 2월 뉴욕 필 지휘를 끝으로 병으로 쓰러진 말러는 그해 5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죽어가던 말러가 최후에 남긴 말은 "모차르트!"였다고 전한다.

염세적 음악에 영향 준 어린 시절

말러는 1860년 7월 7일 프라하와 빈 중간에 위치한 보헤미아의 칼리슈트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체코의 땅으로,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영토였다. 그는 열네 형제자매 가운데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형이 사망했으므로 장남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다리와 심장이 아팠지만 말러의 동생을 열둘이나 낳았고, 아버지가 폭군이라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야 했다. 이런 모습을 본 말러는 일생을 아버지에게 냉담했다. 말러의 형제자매 가운데 반 이상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한 살 아래 남동생 에른스트와 사이가 좋았는데 그 동생은 13세로 병사했다. 이런 가정환경과 동생 에른스트의 투병과 죽음은 말러 작품의 염세적 성격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말러는 14세부터 18세까지 빈 악우협회 음악원에서 율리우스 엡슈타인에게 피아노를, 로베르트 푹스에게 화성을, 프란츠 크렌에게 작곡을 배웠다. 활동 초창기 작곡으로 이름을 알리지 못한 말러는 지휘자로 먼저 성공했다.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 극장, 모라비아의 올로모우츠 극장, 그리고 프로이센의 카셀 궁정 극장 등과 잇달아 계약했고, 1885년에는 유명한 바그너풍의 흥행사 안젤로 노이만의 인정을 받아 25세에 프라하의 독일 오페라 차석 악장으로 발탁됐다. 라이프치히 시립 오페라와 계약하고 이후 2년간 자신보다 연상인 재기 넘치는 수석 지휘자 아르투르 니키쉬와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세 사람의 핀토〉를 편곡·연주해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자신감을 얻은 말러는 교향곡을 썼다.

지휘자로 명성을 얻었지만 극장 관계자나 관객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서 다투고 도중에 사임하는 일도 잦았다. 닮고 싶지 않던 아버지의 공격성을 말러도 가지고 있었다. 깡마른 체구에 높이 솟은 이마, 검고 긴 머리털, 도수 높은 안경 속에서 쏘아보는 듯한 눈초리, 말러의 성격은 외모에서부터 드러난다. 말러 음악에는 신경질적 면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지휘할 때의 신경질도 보통이 아니었다고 한다. 100명이 넘는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를 귀신같이 잡아냈다. 그래서 연주자들은 말러를 존경하면서도 그의 지휘로 함께 연주하기는 꺼렸다.

말러는 유랑민처럼 여기저기를 전전했다. 그의 인생은 지휘자로서 명성 획득과 작곡가로서 좌절의 반복이었다. 1888년 10년 계약으로 부다페스트 왕립 오페라 지휘자로 부임했지만, 극장 측과 다퉈 2년 만에 함부르크 시립 오페라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891년부터 1897년까지 함부르크 시립 극장의 지휘자를 맡았다.

외면당한 생이 담긴 음악을 남기다

유대인인 말러는 자신을 고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오스트리아 사람에게는 보헤미안으로 여겨지고, 독일 사람에게는 오스트리아인으로 여겨졌다. 보헤미아로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불렸다. 1897년 말러는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빈 국립오페라와 계약하려면 가톨릭교도가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말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궁정 가극장과 빈 궁정가극장, 빈 필에서 지휘하며 당대 최고의 지휘자로서 명성을 쌓았다.

말러가 아홉 번째 교향곡 〈대지의 노래〉 스케치를 시작하던 1907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당시 지휘자로서 최고의 지위인 빈 궁정 오페라극장 총감독을 사임했고, 사랑하던 장녀 마리아가 네 살에 갑작스레 사망했다. 설상가상으로 말러 자신의 심장 이상이 발견돼 죽음을 예감했다. 이러한 때에 말러는 한스 베트게가 번역한 중국의 시를 접했다. 말러는 인생과 자연에 대한 관조와 시적 감성에 크게 공감했다. 〈대지의 노래〉에 쓰인 시에 투영된 허무주의와 피안의 동경은 말러의 슬픔과 절망감을 정화했을 것이다. 말러의 염세적 성격과 탐미성이 동양사상에 깊이 공명해서 얻어진 결과다. 말러가 작곡하던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생각하며 가사를 음미하면 눈물이 난다.

당대의 작곡가들은 아홉 번째 교향곡에 대한 징크스가 있었다. 말러는 베토벤·슈베르트·브루크너가 교향곡 9번을 작곡하고 죽은 사실이 두려웠다. 그래서 말러가 아홉 번째 교향곡을 완성했을 때 번호를 붙이는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곡명을 붙여 발표한다. 그러나 '제9의 징크스'는 말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향곡 9번 완성 이후 말러는 불과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 교향곡 10번은 미완성인 채 남겨졌다. 유대인인 말러의 작품은 1930년대 나치에 의해 배격되고 외면당했다. 그의 작품이 재조명된 시기는 탄생 100주년인 1960년 전후다.

글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김태용·민규동 감독의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아이들이 그렇다. 달아나고 싶지만 늘 발 한쪽이 학교라는 공간에 결박돼 있다. 발에 묶인 팽팽한 끈 길이만큼 벗어날 수 없어 학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돼 아이들을 가둔다. 그렇게 갇혀버린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피해자·방관자의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고 우정인지 사랑인지 모르는 감정 사이에서 의리를 지킬지, 배신이라도 해서 숨 한번 쉬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린다.

미성숙이라는 겁

신체검사가 있는 날, 민아(김규리)는 수돗가에서 빨간 노트를 줍는다. 효신(박예진)과 시은(이영진)의 교환일기다. 효신은 튀는 언행과 국어 선생과의 소문 등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다. 민아는 일기를 통해 두 사람 사이를 되짚어 가는 관찰자가 된다. 신체검사를 하는 날, 효신이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고 일기장을 통해 효신과 시은을 느끼기 시작한 민아는 자꾸 효신과 심정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학교 밖 세상은 분주하고 빨리 흐르겠지만, 학교에 갇힌 소녀들의 삶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간다. 박제가 된 소녀들의 시간 속에서 두 소녀 효신과 시은의 사이는 우정보다 더 짙은 사랑의 감정에 가깝다. 두 소녀만이 오롯이 공유하는 개인의 시간과 수많은 소녀가 거칠게 살아가는 공통의 시간 사이에는 시차가 너무 크다. 집단과 개인, 그 분절된 시간을 이어주는 것은 관찰자인 민아다.

세기말의 흉흉한 정서가 떠돌던 그 시절, 1999년 12월 24일에 개봉, 21세기의 마지막 공포영화로 기록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장르영화로서 공포의 농도가 낮은 편이다. 영화는 '괴담'이 아닌 '여자' 고등학생을 이야기한다. 그 시절 모두가 겪어봤을 오해와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학교에 갇힌 채 부유한다.

이미 죽어버린 아이의 영혼이 학교를 미처 떠나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무서움을 포기한 대신 처연함으로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 시절, 소녀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두렵고 잔혹한 공포는 서로의 마음을 끝내 할퀴고야마는 미성숙함이라고 영화는 줄곧 묵도하지만 소녀를 탓하지는 않는다.

결국 성장하지 못한 우리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상상 가능한 저주나 원혼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의 편견과 채찍에 맞서 살아남아야 하는 소녀들의 생존 본능이 날카롭게 콕, 송곳처럼 마음을 찌른다. 갇힌, 혹은 버림받은 사춘기 소녀들이 겪을 수 있는 섹슈얼리티의 혼란과 질투가 오가는 이야기는 처연하고 섹슈얼리티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깊은 동질감을 포괄한다. 그리고 시은과 텔레파시로 소통 가능한 민아는 사라진 효신을 대신해 시은과 더 깊은 연대감으로 엮일 가능성을 열어둔다.

상처 입은 소녀들은 물 없는 돌 위를 헤엄치는 물고기 같다. 아직 덜 자란, 버림받은,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소녀들은 핏빛 소동을 겪은 후에도 한 치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공포다. 그리고 세상과 맞서다 죽은 아이와 살아남은 아이들의 이야기는 이상적 결말에 이르는 법 없이, 그 절망의 순간이 그냥 현실이라는 점을 생채기처럼 아로새긴다.

씨네2000 대표 고故 이춘연을 기리며

영화제작사 씨네2000을 이끈 이춘연은 1994년 심리 스릴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평가받는 〈손톱〉(1994)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미술관 옆 동물원〉(1998) 등 실험성과 작품성을 함께 인정받은 작품을 만들어왔다. 그 중 1998년 시작된 〈여고괴담〉 시리즈는 사회문제를 공포의 형식으로 되짚는 학원 괴담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으며, 빼어난 신인 감독과 신인 배우의 등용문이 됐다. 새로운 시리즈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가 지난 6월 개봉했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1999)
감독 김태용, 민규동
출연 김규리(민아 역), 박예진(효신 역), 이영진(시은 역), 공효진(지원 역)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배우, 연출가, 극작가를 위한 2021년 서울연극센터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플레이업 아카데미

- PLAY-UP ACADEMY -

극작수업
- 희곡창작워크숍
김은성
7.8 (목) - 10.14 (목)
매주 목요일 13-16시 (총 15회)

12뇌신경과 특수감각을 이용한 구체적 액팅코칭
장재키
7.12 (월) - 7.23 (금)
매주 월-금 14-17시 (총 10회)

시간과 공간과 몸의 연결
- 뷰포인트
김신록
7.3(토) - 7.7(수)
10-13시 (총 5회)

신체행동으로 설계하는 연기기술
강량원
8.3 (화) - 8.15 (일)
매주 화/수/금/토/일 19-22시 (총 10회)

자유로운 음성을 위하여
김혜리
8.16 (월) - 8.19 (목)
월-목 10-13시 (총 4회)

기술적 사유를 통한 연출 기술 획득
구자혜
8.2 - 8.13 월/수/금
8.16 - 9.6 월/금
10-13시 (총 13회)

안무해보기
정영두
10.4 (월) - 10.22 (금)
매주 월/화/목/금 10-13시 (총 12회)

문의 02-743-9336, 9337 | www.e-stc.or.kr

* 월별 과정 개강 전 달 모집을 진행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강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연극센터

Webzine+

비유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

연극in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

춤:in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

여름의 할 일

웹진 [비유] 42호의 〈쓰다〉 포스터

"올여름의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 여름 햇살과 함께 내걸린 문장이다. 김경인 시인의 시 〈여름의 할 일〉 일부인데, 흘긋 본 것치고는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름 채비는커녕 일거리에 눈이 묶여 창밖 풍경이 바뀌는 걸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고, 내가 나를 먹이고 재우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도닥일 여유가 얼마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경고등을 켜듯이 열아홉 자를 되뇌었다. 올여름의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어쩐지 그애가 멀리 떠나는 것만 같아서 집 앞 골목까지 따라나섰어요. 가끔 그애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대어 왔으면 할 때조차 고집스럽게 혼자이기를 자처할 때요. 그런 면이 언니를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가파른 내리막길로 점점 사라지는 소애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던 기억이 나요. 그 밤에 떴던 달 모양도요. 방구석 어딘가에 잠자코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잘린 손톱 모양의 가는 그믐달이었어요.
안윤, 〈달밤〉 부분

여름의 할 일은 여기서도 가능하다. 웹진 [비유] 42호에 실린 안윤의 소설 〈달밤〉이다. '나'와 '소애'는 5년 전 광화문에 있는 한 카페에서 같은 아침 근무조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매장 구석구석을 오가며 마치 잘 길든 기계처럼 조용하고 매끄럽게 일하는 소애의 모습에서 '나'는 그 애가 살아온 내력을 읽는다. "노동에 숙련된 몸, 어떤 환경에든 자신을 기꺼이 끼워 맞출 줄 아는 마음 같은" 것을. 묵묵하고 눈치 빠른 소애. 좀처럼 부탁 않는

소애. 언젠가 '나'의 집에서 며칠 지낼 때에도, 열흘쯤 지나 방을 구했다면서 짐을 정리해 떠날 때에도 소애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믐달처럼 움직일 뿐이다.

소애는 요즘 앨범 준비 때문에 안국동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일자리를 구하고서 하루에 네 시간만 일하면 되고 보수도 센 편이라고 좋아했죠.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소애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뜸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사람들이 음식을 정말 많이 남겨요. 설거지도 설거진데 버리는 게 일이에요. 버려지는 음식을 계속 보는 게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뭐랄까. 너무 쉬워요. 버리고 버려지는 게요."

그런 소애를 '나'는 살뜰히 챙긴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는 소애의 한숨을 듣는다. 신세 질 수 있느냐는 소애의 부탁에 사정을 더 묻지 않고 방을 내어줬던 때처럼, '나'는 초라한 잔고를 털어 새 냄비를 마련하고 질 좋은 양지머리와 고사리를 삶아 소애가 먹고 싶어 한 육개장과 나물 반찬을 만들어 푸짐한 생일상을 차린다. 그리고 말해 준다. "축하해, 전소애. 태어난 거, 살아온 거, 살아 있는 거, 다."

언니를 알고 지냈다는 낯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지근한 육개장을 떠먹으며 앉아 있었잖아요. 질긴 대파를 오래오래 씹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옆자리에서 언니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하나같이 정확한 사실은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서 가서 면전에 소주를 뿌리고 싶은 걸 참고만 있었잖아요. 분명했던 건,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언니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조차도요.

그렇게 소애를 아끼고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까닭은 '나'에게도 그런 언니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닐 때 비엔나커피 한 잔을 놓고도 오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언니. 졸업한 후에 글 써서 번 돈이 생기면 꼭 밥을 사줬던 언니. 아프지 마, 안 아픈 게 최고야 말해 줬던 언니. '내'가 나 하나 감당하기 벅차하는 동안 연락이 없다가 사라진 언니. 언니 마음을 "그려보고 짐작해 볼수록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돼버리"는 '은주 언니'가.

작년 소애 생일 즈음, 은주 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나'는 언니가 남기고 간 나머지 세계를 떠안는다. 서울 거리와 사는 동네는 여전히 다를 것 없는 모습이지만 남겨진 '나'의 세계는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나'는 "살아 있는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메모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옮겨 적지 않고 부러 작품 안에 남겨둔다. 나는 나의 많은 언니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 누구든지 그럴 것이다.)

잠든 소애 곁에서 '나'는 언니에게 묻지 못한 언니 마음을 여전히 헤아리고 헤아린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게다가 타인의 그늘과 상처를 온전히 읽는다는 건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아닌 존재를 한 뼘씩 더듬어보고 공감하는 일은, 멈추면 안 될, 사람의 해야 할 일이다. 땡볕에 선 듯이 메마르고 지친 개개인의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건 옆 사람의 '언니 된' 마음일 테니까.

글 **남지은** [비유] 편집자 | 사진 제공 **웹진 [비유]**

연극人n

쓰레기통 가장자리에 선 작가

신촌문화발전소 2021 오드아이프로젝트 〈이홍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연극 〈이홍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중

〈이홍도 자서전〉은 한 작가가 선배 작가를 차례차례 죽이고 자신도 신인 작가에게 죽음을 맞는 가상과 현실이 담긴 '자서전'이다. 주인공인 '작가'는 '퀴어 작가'로서 '퀴어 작가'인 선배 작가들을 죽인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극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불러낸 선배 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가르침을 받으며 시작된다. 올비는 후배에게 당수를 맞아 죽기 전에 극작을 하려면 "살불살조 살부살모殺佛殺祖 殺父殺母"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긴다. 극작 기술을 얻은 주인공은 잇따라 테네시 윌리엄스·토니 쿠시너·장 주네·장 콕토 등 선배이자 퀴어 작가를 불러내 죽인다. 그렇게 모든 선배 극작가를 살해한 주인공은 '극작 기술 +∞'를 달성해 자신 위에 아무도 없는 최고참 작가가 된다.

최고참이 된 주인공은 자신이 갈망하던 모든 극작 기술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에 대한 질투와 후배 작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그의 질투와 불안 모두 현실이 돼 그에게 다가온다. 주인공이 '가짜 게이'라고 비판하는 배우 '안필'은 주인공이 의심하는 바로 그 당사자성을 이용해 온갖 연극상을 휩쓴다. 주인공은 자신이 생각하는 '안필'의 진실을 희곡으로 집필하는데, 이로 인해 주인공은 타

인의 이야기를 허락 없이 사용한 잘못으로 후배 작가에 의해 처단된다. 후배 작가, 또는 변호사이기도 한 배우는 도덕의 벽이 무너진 주인공이 죽은 틈을 타 자신이 새로운 도덕의 문지기가 됐음을 밝힌다.

공연은 이처럼 '정치적 올바름'을 가치관으로 삼은 주인공 그 자신이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 죽는 모습을 그리며, '당사자성' '부정성' '동시대성' 등을 비판의 기준으로 삼는다. 작품은 정치적 올바름과 그것의 배제성에 매몰된 예술계를 비판하는 듯 보인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스스로를 위해 박수치는 관객'과 같이 '정치적 올바름'의 자아도취성에 칼을 겨누는 대사에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이홍도 자서전〉은 '혐오받는 퀴어'가 아니라 '혐오하는 퀴어'의 연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결국 '정치적 올바름'을 이용한 작가의 선배 죽이기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작가들은 무엇을 그토록 갈구했길래 2055년 가상의 미래에서조차 살불살조 살부살모의 관행이 반복되는 것인가?

마침내 쓰레기통 속으로

〈이홍도 자서전〉에서 작가의 죽음이란 물리적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작품 속 작가가 지워지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죽은 선배 중 장 주네가 "원래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라며 체념한 것과 같이, 작품이 세상에 나와 관객·독자에게 '이용당하는' 순간 작가의 죽음은 이미 필연으로 보인다. 본 공연에서 무대장치가 사용되는 방식 또한 작가와 작품의 운명과 맞물린다. 소품들의 본래 용도는 상황에 따라 바뀌며 소실된다. 이는 작가가 작품에 부여한 그 어떤 것도 독자의 손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운명과 닮았다. 하지만 〈이홍도 자서전〉의 주인공은 공연 중간에 사고로 떨어진 달력과 같이 불가피한 작가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찬미한 장 주네를 비판하던 주인공은 잠시 멈칫하고는, "책이 지금 나왔으면 바로 절판됐겠다" 고 읊조린다. 주네는 이에 "부러워 죽겠지?"라는 대사를 남기는데, 이는 주인공의 행위 목적에 대한 가장 적확한 평가임에 틀림없다. 주인공은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여, 자신이 그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들처럼 살해당하기를 원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죽인 작가들의 극작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마저 얻고 싶어 했다. 공연 말미에 주인공은 기차가 다가오는 철로에 머리를 기대듯이 하고 죽음을 맞는다. 이전까지 질투와 혐오·경멸·불안으로 떨리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다. 마치 그 울림을 만끽하듯이, 이것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이홍도 자서전〉의 주인공은 퀴어 작가로서 퀴어 당사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본인은 '항상 혼자'라고 느끼며 고독에 잠긴다. 다시 말해 주인공 작가의 당사자성은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는 장치가 아니다. 작가의 당사자성은 그것이 퀴어적이라 하더라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만 남을 뿐이다. 결국 '작가의 삶에는 알리바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으로서 퀴어에게는 생존이 목적이라도 작가로서 퀴어에게는 죽음이 목적일지도 모른다. 〈이홍도 자서전〉이 그려내듯 작가의 운명은 고독과 외로움, 연대 불가능성뿐이니 말이다.

글 **영이** 폭력과 고통, 그리고 분열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쓴다. 《월간 종이》 제작. monthly-paper.tumblr.com
사진 제공 **신촌문화발전소**

신촌문화발전소 2021 오드아이프로젝트
〈이홍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
일자 2021.6.4(금)~12(토)
장소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
작가 이홍도 연출 송이원
출연 권형준·김정화·박종현 무대 김재란
조명 서가영 음향 목소
영상 손영규 조연출 오휘민
기획 이선민 그래픽 홍진학
주최 이홍도×丙소사이어티 신촌문화발전소

춤+여기

용기를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일상의 춤

에마누엘 사누

당신은 누구입니까?

댄서이자 무용 단체 쿨레칸Koulé Kan의 안무가 에마누엘 사누Emmanuel Sanou입니다.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쿨레칸'의 뜻은 '뿌리의 외침'입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하고, 뿌리를 잃고 있는 지금 뿌리를 지키자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뿌리라는 것은 문화이자 정체성인데, 당신이 어디를 가든 잃지 않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쿨레칸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봉쿠라지Bon Courage'입니다. '용기를 냅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항상 저와 함께 부르키나파소를 찾는 멤버들과 함께 지었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분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낯선 부르키나파소에 가는 건, 그 자체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갈 때마다 용기와 힘을 내자고 힘차게 외치며 다녀오곤 했습니다.(웃음)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외국인 예술가로서 한국에서 공간을 만들고 작업하는 것 자체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모든 이가 용기를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봉쿠라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예술은 일상과 함께하기도, 일상과 아주 다르기도 합니다. 예술은 우리를 둘러싼 일상에서 영감을 받고, 일상을 치유하고 지속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가려 합니다. 이 공간에서 저는 제가 벽에 쓴 문구들에서 춤출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공간에서 함께 춤추는 여러 댄서, 수업에 온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특히 춤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의 움직임은 아주 개인적이고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공간에서 창작의 힘을 많이 얻습니다.

예술에 있어 사회참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술로 제3의 공간을 만들어서 대화하고자 하며, 우리 목소리를 계속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듣고 말하게 하고자 하며, 언제 어디서든 메시지를 던지려 합니다. 쿨레칸을 만든 이유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이와 함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거시적 의미에서는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에마누엘 사누는 댄서, 쿨레칸 안무가다. 부르키나파소 국적 댄서이자 안무가이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며 창작 및 공연,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다 2014년 한국에 정착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그는 몸의 대화이자 하나의 언어이며, 국경과 문화, 인종과 장애 등 다양한 장벽을 넘어서는 춤을 통해 환대할 수 있는 문화를 전달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진 [춤:in]

봉쿠라지 ©Kenn. 김병구

2021
Calendar

07

Mon	Tue	Wed
5 ● 공연 〈황지인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소누스아트 사운드시리즈 10〉 ● 연극 〈헤뽀빠〉(~7. 11) ● 연극 〈차마, 차가워질 수 없는 온도〉(~7. 15)	**6** ● 연극 〈체인징 파트너〉(~7. 6) ● 공연 〈양정윤 바이올린 리사이틀〉 ● 연극 〈첨부 파일_서식01_이력서〉(~7. 7) ● 연극 〈아홉평의 불야성〉(~7. 10) ● 연극 〈어서와요, 이곳으로〉(~7. 11) ● 연극 〈지구가식탁해가지구〉(~7. 11) ● 연극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울지 않는다〉(~7. 11) ● 연극 〈족보〉(~7. 11) ● 뮤지컬 〈박열〉(~9. 12)	**7** ● 연극 〈서울다방〉(~7. 11) ● 연극 〈뇌까리다-권력탐구〉(~7. 11) ● 연극 〈가별〉(~7. 11) ● 연극 〈트리거〉(~7. 18) ● 연극 〈산울림 고전극장-동물농장〉(~7. 18)
12 ● 공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7. 12)	**13** ● 공연 〈클래식 판타지아〉 ●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10. 13)	**14** ● 연극 〈러브 이즈 타이밍〉(~7. 14) ● 전시 〈꼴, 모양, 자리〉(~7. 14) ● 국악 〈잘 살아보세-Happy Life〉 ● 공연 〈굿모닝! 드보르작〉 ● 연극 〈리더스〉(~7. 18) ●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7. 18) ● 연극 〈후에〉(~7. 18) ● 연극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7. 18) ● 연극 〈더 싸이킥〉(~7. 25)
19	**20** ● 연극 〈밑낯〉 ● 공연 〈심산아트홀 화요콘서트〉 ● 공연 〈신이레 피아노 독주회〉 ● 연극 〈올모스트 메인〉(~7. 25) ● 공연 〈화요콘서트〉 ● 뮤지컬 〈쓰릴 미〉(~10. 3)	**21** ● 연극 〈아인슈타인의 별〉(~8. 1) ● 연극 〈에코백〉(~7. 23) ● 연극 〈할머니의 이야기치마〉(~7. 22)
26	**27** ● 공연 〈피아니스트 탁영아 리사이틀〉 ● 공연 〈김보라 첼로 독주회〉	**28** ● 무용 〈해설이 있는 발레〉 ● 공연 〈진 덕 비올라 독주회〉 ● 연극 〈세 친구〉(~7. 29) ● 연극 〈정크, 클라운〉(~7. 29) ● 연극 〈내가 없는 세상〉(~8. 1) ● 연극 〈창 밖의 여자〉(~8. 8) ● 공연 〈즐거운 너의 집〉(~8. 1)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u	Fri	Sat	Sun
1 ● 공연 〈국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 공연 〈서부의 아가씨〉(~7. 4) ● 연극 〈사라져, 사라지지마〉(~7. 4) ● 연극 〈누룩의 시간〉(~7. 11) ● 공연 〈2021 줄라이 페스티벌〉(~7. 31) ●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8. 29)	**2** ● 연극 〈내부자거래〉(~7. 11) ● 연극 〈뤼송〉(~7. 25) ● 전시 〈조용한 날들〉(~7. 22) ● 공연 〈SONANS〉(~7. 3)	**3** ● 뮤지컬 〈바보사랑〉(~7. 3) ● 공연 〈유재아 플루트 독주회〉 ● 공연 〈오페라 카니발〉 ● 국악 〈노인과 바다〉(~7. 4) ● 무용 〈스텝업〉(~7. 4) ● 연극 〈코리올라누스〉(~7. 15) ● 뮤지컬 〈공룡 타루〉(~8. 29)	**4** ●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7. 4) ● 뮤지컬 〈특별한 손님〉(~7. 4) ● 연극 〈서교동에서 죽다〉(~7. 4) ● 연극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7. 4) ● 연극 〈버닝 옐로우〉(~7. 4) ● 연극 〈예상치 못한 방문객〉(~7. 4) ● 연극 〈피라모스와 티스베〉(~7. 4) ● 연극 〈립, 명!〉(~7. 4) ● 공연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 연극 〈졸탄쇼〉(~7. 31)
8 ● 뮤지컬 〈흔한남매〉(~8. 1) ● 뮤지컬 〈홀연했던 사나이〉(~9. 26) ●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10. 3) ● 전시 〈BEING HUMAN〉(~9. 26) ● 공연 〈지하비행사〉(~7. 18)	**9** ● 국악 〈악단광칠 콘서트〉 ● 전시 〈관념을 사생하다〉(~7. 22) ● 전시 〈고스트 모션〉(~7. 9) ● 공연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7. 10) ● 연극 〈이벽아전〉(~7. 10) ● 연극 〈추락 II〉(~7. 18) ● 연극 〈오필리아의 그림자극장〉(~7. 18)	**10** ● 무용 〈피터팬〉 ● 뮤지컬 〈피터팬〉 ● 공연 〈이지현 바순 독주회〉 ● 공연 〈장우리 첼로 독주회〉 ● 연극 〈빌미〉(~7. 25) ● 공연 〈Piano & Talk〉 ●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7. 25) ● 뮤지컬 〈겁쟁이 빌리〉(~8. 1) ● 연극 〈두들팝〉(~9. 5) ● 전시 〈just painting〉(~7. 10) ● 〈내일은 예술놀이〉(~7. 25)	**11** ● 연극 〈미래상상마술쇼〉(~7. 11) ● 뮤지컬 〈명동 로망스〉(~7. 11) ● 전시 〈숨바꼭질: 눈길, 귀엣말〉(~7. 11) ● 전시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7. 11) ● 전시 〈김정기, 디아더사이드〉(~7. 11) ● 연극 〈빈센트 리버〉(~7. 11) ● 연극 〈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7. 11) ● 연극 〈허스토리〉(~7. 11) ● 연극 〈마음에 대한 단상〉 ● 공연 〈접신과 흡혼〉
15 ● 공연 〈드니 성호 기타 리사이틀〉 ● 연극 〈믿을지 모르겠지만〉(~7. 18)	**16** ● 공연 〈홍진호 첼로 리사이틀〉 ● 공연 〈물을 찾아서〉(~7. 17) ● 연극 〈수페로 프랑켄슈타인〉(~7. 17) ● 국악 〈바운스〉(~7. 18) ● 뮤지컬 〈광화문연가〉(~9. 5)	**17** ● 뮤지컬 〈악보〉 ● 공연 〈엔니오 모리꼬네 영화음악 콘서트〉 ● 공연 〈Deep Sea Creatures〉(~7. 18) ● 전시 〈숲〉(~7. 17)	**18** ● 공연 〈박하연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장선아 플루트 독주회〉
22 ● 공연 〈김남훈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 전시 〈투명한 거짓말〉(~7. 22) ● 연극 〈순희, 지현, 영숙〉(~7. 25) ● 연극 〈버닝 옐로우〉(7. 25) ● 연극 〈당연한거 아니야?〉(~7. 25)	**23** ● 공연 〈전유진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백한울 피아노 독주회〉 ● 공연 〈룽: 깊은 심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7. 25)	**24** ● 공연 〈론 브랜튼 & 알렉시스 콜 서머나잇 재즈〉 ● 공연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 연극 〈오늘, 오늘이의 노래〉(~7. 25) ● 연극 〈자라는 자라〉(~7. 25)	**25** ● 연극 〈멸종위기동물편〉(~7. 28) ● 공연 〈손연지 오보에 독주회〉 ● 공연 〈윤철희, 심준호 첼로 연주회〉 ● 공연 〈이은호 바순 리사이틀〉 ● 전시 〈In Bloom〉(~7. 25)
29 ● 공연 〈꿀벌 마야의 모험〉(~7. 31) ● 연극 〈여기, 한때, 가가〉(~8. 1) ● 전시 〈누가 우리 귀여운 코끼리의 코를 잘랐나〉(~7. 29)	**30** ● 국악 〈우리악기 우리음악-거문고 김준영〉 ● 연극 〈네네네〉(~8. 1) ●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8. 29) ● 전시 〈그림, 그림〉(~7. 30)	**31** ● 연극 〈나와 몬스터 그리고 가방〉(~8. 1) ● 연극 〈토지 I〉(~8. 5) ●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8. 22)	

연극 〈판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희경'이의 생일 파티가 한창이다. 모두가 즐거운 그때 가족들은 희경이에게 꿈이 뭔지 묻는다. 판다를 정말 사랑하는 희경이는 판다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멈추고, 모든 사건이 시작된다.

일시 6월 30일(수)~7월 1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 장소 성북마을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507-1419-4155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SONANS〉

나와 나 외의 것들 사이에서 발생한 가면, 그 가면과 다른 가면의 사이에서 발생한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와 작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야기. 이야기와 몸 사이에서 발생한 소리와 형상에 대해 말한다.

일시 7월 2일(금)~3일(토)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7시 30분 |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 대상 만 12세 이상 | 관람료 1만 5천 원 | 문의 010-6565-6062

정경자 개인전 〈조용한 날들〉

전시는 팬데믹 상황에 합의된 거리두기로 소원한, 소란스러운 고요 속에서 인간으로서 '나'를 들여다보게 한다. 힘과 기술로 모든 것에 경계를 지으며 직진해 온 문명이 주춤하는 사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나'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일시 7월 2일(금)~22일(목) 오후 12시~6시(월 휴관) | 장소 갤러리진선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23-3340

소리꾼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쿠바의 작은 어촌인 코히마르 마을에 사는 한 노인 어부의 이야기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노인은 늘 커다란 고기를 낚는 타고난 어부였다. 바다에서 85일째 되는 날, 노인에게 커다란 청새치가 찾아온다. 바다 깊은 곳의 청새치와 수면에서 홀로 낚싯줄을 붙잡고 버티는 노인의 한판 싸움이 벌어진다.

일시 7월 3일(토)~4일(일) 토 오후 5시, 일 오후 3시 | 장소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문의 02-440-0500

연극 〈코리올라누스〉

로마 장군 코리올라누스는 혈혈단신으로 도시를 함락해 로마를 구한다. 최고 권력인 집정관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민중의 외면을 받아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배신과 복수가 뒤따른다.

일시 7월 3일(토)~15일(목) 화~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5시, 일 오후 3시 | 장소 LG아트센터 |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 문의 02-2005-0114

연극 〈2021 산울림 고전극장 – 동물농장〉

인간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혁명을 이룬 매너 농장의 동물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구호 아래 동물들의 이상사회를 이룩했으나, 자신들을 두뇌 노동자라고 일컫는 돼지들은 점점 지배계층으로서 권력을 앞세워 동물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일시 7월 7일(수)~18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화 휴관) | 장소 산울림 소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334-5915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지하비행사〉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꿈꿀까. 모든 것을 포기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항상 더 나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탐험한다. 결국 새로운 것은 없음을 알면서도,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용기가 오늘을 만든다. 〈지하비행사〉는 바로 그 용기가 만든 오늘에 대한 이야기다.

일시 7월 8일(목)~18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월 휴관)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 대상 만 12세 이상 | 관람료 3만 원 | 문의 인스타그램 @play_hyeyum

---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 음악회
피아노 콘서트 〈Piano & Talk〉

피아노 교수 음악회는 11월까지 네 번 진행한다. 7월 음악회는 박숙련과 이형민의 '인생의 방황과 기다림의 여정'으로, 역량을 갖춘 피아노 전공 교수가 들려주는 클래식 명곡의 선율이 건반 위로 흐른다.

일시 7월 10일(토) 오후 3시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예술놀이LAB 〈내일은 예술놀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미래사회 이슈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고, 예술로 실험한다. 〈내일은 예술놀이〉의 7월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보물섬의 비밀을 찾아서' '움직임을 그리다, 키네틱 아뜰리에' '먼지정원'이 있다.

일시 7월 10일(토)~25일(토) *프로그램별 시간 상이 |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서울호수공원 | 참가비 무료 | 문의 02-2697-2600

〈Petite Concert 작은 음악회〉
잘 살아보세-Happy Life

'국악으로 놀아보세'라는 의미가 국악밴드 구각노리 팀 이름에 직관적으로 담겨 있다. 해금의 애절함과 슬픔, 거문고의 열정과 담담함, 해금병창의 환희, 풍물드럼의 한국적 풍경과 신명을 노래한다. 노세·광끼·쾌지나칭칭을 선보여 한국인 특유의 감성인 '한'과 '흥'을 국악으로 녹여낸다.

일시 7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2021 정동극장예술단 〈바운스〉

예술단원이 직접 기획·연출·구성까지 맡아 선보이는 색다른 감성의 공연. 무용·타악·연희 등 단원들의 기량을 특별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한편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전진하고자 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열망을 드러낸다.

일시 7월 16일(금)~18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 장소 국립정동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751-1500

〈화요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8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서초교향악단이 선보이는 아시아 최초 하이든교향곡 107곡 전곡 시리즈 프로젝트다.

일시 7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열정' 그리고 뜨거운 찬사,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레전더리 콘서트: 전설은 살아있다〉

1960~1970년대 한국을 세계에 알린 클래식계 '레전더리'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의 진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비발디·드보르작·사라사테의 곡을 연주한다.

일시 7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신효철 〈투명한 거짓말〉

불편한 진실보다는 필터로 만들어진 환상적 이미지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와 패러독스를 표현한 전시다. 신효철 작가가 바라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시각이 생각의 환기를 유도한다.

일시 ~7월 22일(목)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공휴일 휴관) | 장소 심산문화센터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연극 〈자라는 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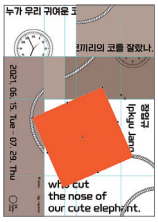
동화 콘서트로 재탄생한 판소리 '수궁가'의 별주부가 왔다. 용왕님께 인정받고 싶던 어떤 자라의 고생담과 가슴 뭉클한 성장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음이 자라난 자라는 어디로 향했을까?" 바닷속 이미지와 용궁을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낸다.

일시 7월 24일(토)~25일(일) 토 오후 2시·5시, 일 오후 2시 | 장소 노원어린이극장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289-3453

〈해설이 있는 발레 Shape of Ballet〉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사업으로 발레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발레의 현대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와이즈발레단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협업으로 현대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1만 4천 원 | 문의 02-3477-2805



장입규 개인전 〈누가 우리 귀여운 코끼리의 코를 잘랐나〉

독일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 장입규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디지털상의 편집 기법을 차용해 일상의 사물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코끼리를 가장 코끼리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장입규는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우리의 인식 체계에 대해 질문한다.

일시 ~7월 29일(목) 오후 12시~6시(월·일·공휴일 휴관) | 장소 CR Collective | 관람료 무료 | 문의 070-4006-0422

신형록 개인전 〈그린, 그림〉

출세와 풍요를 상징하는 물고기와 행운의 상징인 클로버를 레진 위에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7월 30일(금) 월~금 오전 9시~오후 9시(주말·공휴일 휴관) | 장소 심산문화센터 서리풀 休 갤러리 | 관람료 성인 1천 5백 원, 청소년 1천 원(독서실 이용객 무료) | 문의 02-3477-2074, 070-5057-6235

공간 예약 하기

10대들의 삶이
예술과 만나는 아츠포틴즈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맛있는 간식, 친구들과의 수다, 재미있는 예술경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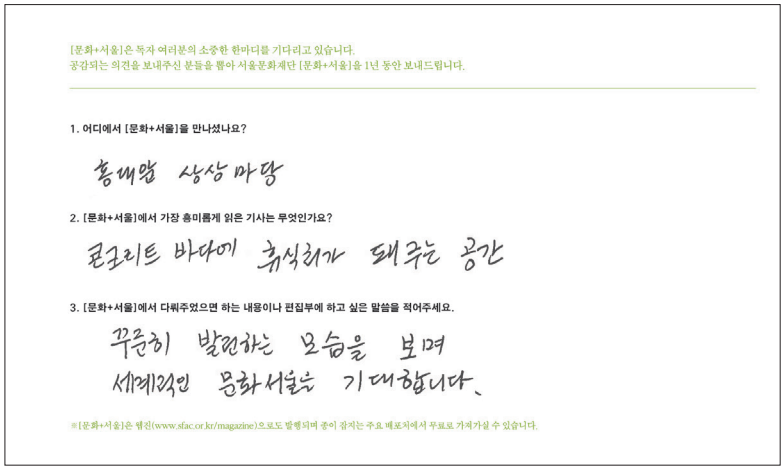
이용시간 : 화~금 (14시부터 21시까지)/ 토(11시부터 18시)
예약방법: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서울예술교육센터 ARTS FOR TEENS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홍대앞 상상마당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콘크리트 바다에 휴식처가 돼주는 공간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적인 문화서울을 기대합니다.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정복수 님(서울시 관악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홍대 앞 상상마당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콘크리트 바다에 휴식처가 돼주는 공간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적인 문화서울을 기대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편집 후기

무더위와 장마 없는 여름이 있을까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같이 웃어요 😊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책공장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국내 여행을 계획해 봐야겠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바라던 여행은 아직 멀지만 모쪼록 올여름 무탈하길 바라봅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얼쑤! **장영수 객원 기자**

SEOUL ART SPACE SEOGYO SEORO MEMBERSHIP

SEOUL ART SPACE SEOGYO SEORO MEMBERSHIP

서교예술실험센터 멤버십 '서로' 모집

모집 인원 선착순 300명

신청 https://form.typeform.com/to/Vd8sg2U1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1551

멤버십 신청

〈Makutu와 불로초(3주차)〉
혼합재료 | 1800×750×735mm | 2020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07
9 771739 774005
ISSN 1739-774X